규장각 소장 집부(集部) 도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2)

- 장서인(藏書印) 조사를 중심으로 -

김수진* · 김하라 · 오세현*** · 유정열**** · 유종수 *****

1. 머리말
2. 집부 목록 사업과 장서인 조사
3. 장서인 분석과 도서의 이력 고구(考究)
4. 장서인 조사의 학술적 의미
5. 맺음말

초록: 본고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행중인 '규장각 소장 집부(集部) 도서 조사 사업'의 연구 결과 가운데 '장서인(藏書印) 항목의 조사'에 대한 내용을 발전적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집부 사업의 중심 목표는 규장각에 소장된 약 6,000여종의 문집 자료를 전수 조사해서 21세기형 목록집을 새롭게 발간하는 데 있다. 소장 자료의 체계적 정리, 즉 목록의 지속적 업데이트는 규장각이 완수해야 할 사회적 책무 가운데 가장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목록 사업은 막대한 양의 원전 자료에 대한 정밀한 실사를 요구하므로, 일개 연구자가 도모할 수 있는 학술 사업이 아닐뿐더러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돼 속전속결로 완결하는 일회성 사업도 될 수 없다. 중장기적 시일이 소요되는 목록 사업의 이러한 제약은, 조사 대상 자료의 특성에 맞춘 연계 사업을 발굴해 병행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집부 사업은 2013년 출범부터 집부 목록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규장각 도서 장서인 자료집』(가칭)과 『규장각 소장 선본문집총서』(가칭)의 발간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었다. 집부 목록 사업과 장서인 사업의 연계는, 규장각 소장 자료 중 한국본 집부 고도서의 압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자, 장서인 자료집이 한국학 연구자에게 필요한 대표적 공구서(工具書)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재학.

www.kci.go.kr

본고의 소개를 통해 집부 사업에서 장서인 조사가 갖는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집부 사업의 결과로 장서인 자료집이 발간됨으로써 한국학의 견실한 기초가 수립되기를 희구한다.

핵심어 : 규장각 소장 집부도서 조사사업, 목록집, 장서인, 장서인 자료집, 선본문집총서

1. 머리말

본고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행중인 '규장각 소장 집부(集部) 도서 조사 사업'의 연구결과 가운데 '장서인(藏書印) 항목의 조사'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1] 고전적(古典籍) 자료를 정리할 때 적용되는 주요 메타 데이터는 표제(標題)와 저자(著者), 판사항(版事項), 형태사항(形態事項), 주기사항(註記事項) 등이다.[2] 일반적으로 장서인은 메타 데이터 중 주기사항의 일부로 처리되어 그 하위 항목 아래 인기(印記)를 기록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집부도서 조사사업(이하 '집부사업'으로 약칭)은 〈별첨자료 1: 집부도서 조사카드 형식〉에서 확인되듯 조사카드에 장서인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고전적 자료는 형태적 측면에서 고도서(古圖書)와 고문서(古文書)로 양분되고, 사부분류(四部分類) 체계에 의해 경사자집(經史子集)으로 나뉘며, 간행지에 따라 한국본(韓國本), 중국본(中國本), 일본본(日本本)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료 조사에서 주요 메타 데이터를 공유하되, 조사 대상 문헌의 형태별·주

1) '규장각 소장 집부도서 조사사업'(現)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한 '귀중본도서 조사사업'(舊)의 연구방법과 결과를 이어받아 규장각 소장 문집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규장각 전체 도서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사업 명칭을 바꾼 것이다. '귀중본도서 조사사업'(舊)에 대해서는 김수진·오세현·김하라 외, 2015「규장각 소장 집부(集部) 도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1)」,『규장각』47 참조.

2) 고문헌 자료 정리의 메타 데이터 추출방식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2009『고서·고문서 조사편람』, 21-57면 참조.

www.kci.go.kr

제별·간행지별 성격에 맞추어 특정 부분의 조사를 심화하거나 메타 데이터 추출 방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집부사업에서 장서인 항목이 특별 관리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사인(私印)을 기준으로 규장각 자료의 장서인 비율을 살펴보면 고도서〉고문서, 집부〉자부〉경부〉사부, 한국본〉중국본 순으로 압인 빈도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규장각 전체 자료 중 장서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찍힌 자료가 바로 '한국본 집부 고도서'인 것이다.

이에 집부사업은 2013년부터 일관되게 주요 서지 사항으로 장서인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사업 결과물로 목록집의 발간 외에 '규장각 도서 장서인 자료집'(가칭)의 발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의 소개를 통해서 집부사업에서 장서인 조사가 갖는 중요성 및 장서인 조사의 학술적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2. 집부 목록 사업과 장서인 조사

1) 집부도서조사사업 현황과 장서인 비율

집부사업은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이하 『한국본목록』으로 약칭)에 수록된 약 4,500여종의 집부 도서 및 『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이하 『중국본목록』으로 약칭)에 수록된 약 1,500여종의 집부 도서를 전수 조사해서 21세기형 목록집을 새롭게 발간한다는 목표 아래 기획되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약칭)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목록사업과 해제사업을 추진해 고문헌 소장기관의 역할모델을 제시했지만 재원의 부족으로 2000년대부터는 장서의 체계적 정리에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았다. 1994년에 수정판 『한국본목록』의 발간 이후 수십 년간 한국학의 발전으로 고문헌 정리기법이 한층 심화되었지만, 규장각목록은 20세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집부사업은 최근의

www.kci.go.kr

연구결과를 수렴하는 한편, 집부 자료의 특성에 맞춘 조사방식을 적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도합 2,619건의 자료를 실사하였다.[3)]

〈표 1〉 집부사업 중장기 계획(안)

단계	조사 대상	해당연도	연차	주요 조사 내용
1단계 (5년)	『한국본종합목록』 소재 별집류	2013	1년차	원본 853건 조사 완료
		2014	2년차	원본 887건 조사 완료
		2015	3년차	원본 879건 조사 완료
		2016	4년차	원본 1000여건 조사 진행중
		2017	5년차	한국본 별집류 전수 조사 완료
2단계 (3년)	『한국본종합목록』 소재 총집류 외(外)	2018	1년차	총집류 조사
		2019	2년차	소설류 외 조사
		2020	3년차	한국본 집부 전수 조사 완료
3단계 (3년)	『중국본종합목록』 소재 집부 도서	2021	1년차	별집류 조사
		2022	2년차	총집류 조사
		2023	3년차	중국본 집부 전수 조사 완료

현재의 예산과 인력구조를 유지한다면 2023년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조사대상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5년)에서는 한국본 별집류(別集類) 도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2단계(3년)에서는 한국본 총집류(總集類) 및 소설류(小說類)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한국본 집부 전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한다. 한편 3단계(3년)에서는 중국본 집부 도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

3) 본고에서 사용하는 '종'과 '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규장각에는 초간본 『대산집』(大山集)이 3건 소장되어 있는데 기존 목록집에는 3건 모두 이본(異本)으로 판별해 3종 3건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실사 결과 모두 동종본이었므로 1종 3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집부사업은 기존에 동종본으로 분류된 도서라 하더라도 대표 도서 1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모두 실사해 동종과 이종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청구기호별 도서 1건당 1건의 조사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www.kci.go.kr

해서 한국본과 중국본의 분류 오류를 수정하고 『규장각집부목록(한국본)』과 『규장각집부목록(중국본)』을 동시 발간한다.[4)]

집부사업이 올해로 1단계 4년차에 접어들면서 특기할 점은, 장서인 정보가 집적됨에 따라 목록사업과 장서인 조사가 상호 긴밀히 연결되는 국면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장서인 조사란 도서에 압인된 인장의 유무를 확인해서 인영(印影)을 사진 촬영하는 한편 인기(印記)를 판독해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후술하거니와 장서인 조사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목록집에서 인기 사항으로 반영되지만, 장서인 정보를 기반으로 도서의 편저자(編著者)와 간사시기(刊寫時期) 등 주요 서지사항을 추적하고 비정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서인 조사와 집부 목록사업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논하기에 앞서, 여기서는 먼저 집부 자료의 압인 비율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2015년도의 경우, 조사 대상 문집에 압인된 장서인은 관인(官印) 제외 총 638과(顆)에 달했다. 2014년도 경우 관인 포함 총 635과의 장서인을 조사했고 2013년도 경우 총 534과를 조사했다. 한 건의 문집에 적게는 한 과에서 많게는 서너 과의 인장을 찍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압인 비율이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사자집 가운데 유독 집부 자료에 이처럼 많은 수의 장서인이 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 문집은 저자 개인의 저술집(著述集)이자 저자가 속한 공동체, 이를 테면 가문이라든가 당파, 학파의 집단공유물(集團共有物)로 인식되었다.[5)] 한국본 집

---

4) 집부사업이 한국본과 중국본 목록의 동시 발간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82년에 『중국본목록』이 발간된 이후 1994년에 수정판 『한국본목록』이 발간되면서, 기존에 중국본으로 분류되던 도서 중 일부가 한국본으로 판정되어 『한국본목록』에 수록되었다. 그 결과 현재 『중국본목록』과 『한국본목록』에 중복 수록된 도서가 존재한다. 그런데 중복 수록 도서 중에는 『고상시집』(高常侍集) 〈奎中 4062〉본과 같이 중국본이 분명함에도 한국본으로 판정된 경우가 왕왕 발견된다. 따라서 한국본·중국본 판정의 재검토가 요청되므로, 한국본 집부 조사(1단계·2단계)와 중국본 집부 조사(3단계)는 상호 연동될 수밖에 없다. 즉, 집부사업은 3단계를 완료한 시점에야 비로소 한국본목록과 중국본목록을 확정할 수 있다.

5) 조선시대 문집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는 류탁일, 2001 「韓國 옛 '文集'의 樣態와 出版過程」, 『嶺南地方出版文化論攷』, 세종출판사; 김수진, 2013 「朝鮮後期 文集刊行의 推移와 그 特徵」,

www.kci.go.kr

부 고도서에 장서인 비율이 높은 것은 문집이 갖는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에 말미암은 바가 크다. 조선시대에는 저자 사후 간행 관례가 준수되었기 때문에 문집의 간행을 생전에 준비해놓되 실제 간행은 사후로 미루어놓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자편문집(自編文集)의 증가가 그것인데 자편문집에는 저자가 원고에 자신의 인장을 찍어 해당 문집이 스스로의 편찬물임을 드러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대표적 예로 『뇌연시고』(雷淵詩稿: 奎 12241)에 찍힌 '유용덕재'(有容德哉)는 저자 남유용(南有容, 1698-1773)의 것이고, 『경암문고』(絅庵文稿: 古 3428-525)에 찍힌 '경암주인'(絅庵主人)은 저자 신완(申琓, 1646-1707)의 것이다. 이 책들에 찍힌 장서인은 단순히 책의 소유자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자와 책의 소유자가 일치한다는 점, 다시 말해 해당 문집이 저자 생전에 정리된 저작물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문집의 일차적 성격, 즉 저자 개인의 저술집이라는 측면에서 저자가 작가의식의 발로로 문집에 인장을 남겨 자편여부를 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문집의 이차적 성격으로 인해서, 문집 소유자가 저자와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인장을 찍어 소속감과 연대감을 표시하는 일도 적잖이 일어난다. 김육(金堉, 1580-1658)의 『잠곡유고』(潛谷遺稿: 奎 1782)에 찍힌 '청풍세가'(淸風世家), '김우명인'(金佑明印)은 저자의 아들 김우명(金佑明, 1619-1675)의 인장이다. 가문의식의 발로로 저자의 문집에 그 후손이 장서인을 남긴 것이다.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의 『서포집』(西浦集: 奎 4059)에 광산김씨(光山金氏) 가문의 김진상(金鎭商, 1684-1755)의 인장이 찍힌 것, 조익(趙翼, 1579-1655)의 『포저집』(浦渚集: 奎 3521)에 풍양조씨(豊壤趙氏) 가문의 조지항(趙持恒, 1638-?)의 인장이 찍힌 것 등등 문집이 가문의 공유물로 인식되어 장서인이 찍힌 경우는 대단히 많이 발견된다.

한편 규장각 소장 한국본 집부 도서 중 김시묵(金時默, 1722-1772)의 인장이 찍힌 자료를 일별해보면 모두 노론계(老論係) 문인의 문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

『語文硏究』 159. 조선시대 사대부사회에서 문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임형택, 2015 「한국본 集部의 형성 배경 및 문헌적 가치」, 『규장각』 46 참조.

www.kci.go.kr

시묵 구장본(舊藏本) 6종에는 노론사대신으로 일컬어지는 김창집(金昌集, 1648-1722)과 조태채(趙泰采, 1660-1722)의 문집을 비롯해서 김춘택(金春澤, 1670-1717), 오원(吳瑗, 1700-1740), 김창협(金昌協, 1651-1708), 홍세태(洪世泰, 1653-1725)의 문집이 포함되어 있다. 노론계의 당파적 맥락 안에서 의식적으로 관련 문집을 수집하고 장서인을 남긴 것이다.

물론 노론계 인물인 민응수(閔應洙, 1684-1750)가 남인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서애집』(西厓集: 古 3428-15)에 장서인을 남긴 것에서 알 수 있듯, 본래 장서인은 소장자 표시이므로 당파라든가 학파와 무관하게 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장서인을 통해 소장자를 추적해보면 특별한 존경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문집 저자와의 학파 혹은 당파적 관련성 안에서 인장을 남기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민응수만 하더라도 노론계 선배의 문집인 『월사집』(月沙集: 古 3428-30)과 『택당집』(澤堂集: 古 3428-67)에 장서인을 남기었다.

나아가 남인의 영수 허목(許穆, 1595-1682)의 『미수기언』(眉叟記言: 古 0270-8)에는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장서인이 찍혀 있고, 노론의 영수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우암집』(尤菴集: 奎 5729, 古 1360-29)에는 윤심형(尹心衡, 1698-1754)과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저자가 속한 학파와 당파의 사적 계보 속에서 관련 인물이 그 문집을 소장하고 장서인을 남긴 것이다.

이상에서 규명한 대로 조선사회에서 문집이 갖는 이중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경부・사부・자부에 비해 집부 도서의 장서인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저자가 자편문집에 인장을 남긴 것은 문집의 일차적 성격, 즉 저자 개인의 저술집이라는 측면에 기인한다. 다음으로 저자와 사회적 관계망에 놓여 있는 인물이 관련 문집을 모으고 장서인을 남긴 것은 문집의 이차적 성격, 즉 저자가 속한 집단 공유물로의 측면에 기인한다. 조선시대 문집에서 장서인은 비단 소유권 표시의 기능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작가의식, 가문의식, 당파의식의 표출로서의 기능도 담당했다는 의미이다.

www.kci.go.kr

〈표 2〉 본고 제2장 제1절 관련 장서인

德哉/有容	主人/絅庵	明印/金佑	時默/金印	景平/衡字/尹心/坡平
『雷淵詩稿』	『絅庵文稿』	『潛谷遺稿』	『二憂堂集』	『尤菴集』

2) 장서인 조사의 실제

장서인 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기존 목록집에 제시된 인기 정보와 실제 도서에 나타난 장서인 상황을 대조해서 인문(印文) 오독(誤讀)을 수정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장서인의 인영(印影)을 사진 촬영해서 그 이미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합하는 것이다. 인영의 수합은 장서인의 심미적 기능을 감안한 것이자 인문 판독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수정 관리하기 위함이다.

작업의 구체적 방법은 〈별첨자료 2: 장서인 조사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 조사과정을 약술하기로 한다. 실사 자료는 김상헌(金尙憲)의 『청음선생집』(淸陰先生集: 經古 819.53-G425c)이다.

첫 번째 단계는 조사에 앞서 목록집에 기재된 장서인 정보를 검토하는 것이다. 인기 정보가 있을 경우 미리 숙지하여 두고, 실제 조사에서 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검토 결과 목록집에는 이 책에 '정호중순보장'(鄭澔仲淳甫章) 1과가 찍혀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6] 따라서 이 책의 원소장자가 정철(鄭澈)의 현손인 정호(鄭澔, 1648-1736)였음을 미리 인지하고 실사에 들어간다.

두 번째 단계는 원본을 열람하여 인기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다. 『청음선생집』〈經古 819.53-G425c〉본은 제1책 서문(序文)의 우측 하단에 실제로 정호의 해당 인장이 찍혀 있다. 이렇게 목록집의 인기 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해당 인장이 찍힌 본문 전체에 대한 사진을 찍고 조사카드에 그 사진의 정보를 "서문 첫 장, 1과,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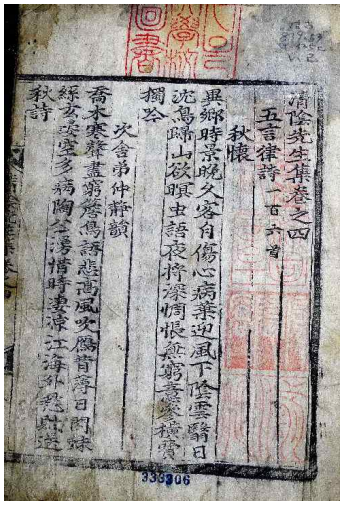
6) 인기 사항은 규장각, 1994 『(수정판)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 1709면 참조.

www.kci.go.kr

일명: 經古 819.53-G425c_서문"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한다.

세 번째 단계는 해당 장서인을 근접 촬영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장서인의 인문 및 압인 위치를 확인하고 인영의 크기를 재어 "장서인 1(鄭澔仲淳甫章): 5.0×5.0cm, 右下, 파일명: 經古 819.53-G425c_1"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한다. 여기서 '장서인 1'은 해당 자료에 압인된 첫 번째 장서인임을 나타낸 것이고, 괄호에 쓴 "鄭澔仲淳甫章"은 그 인문을 가리키며 "5.0×5.0cm"는 인영의 크기가 세로 5.0cm와 가로 5.0cm의 정방형임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右下"는 장서인이 압인된 위치가 전체 면 가운데 오른쪽 하단에 속함을 표시한 것이다. '파일명' 이하의 '經古 819.53-G425c_1'은 근접 촬영한 장서인 사진 파일에 부여될 이름이다.

그런데 실사 도중 『청음선생집』에 여러 종의 장서인이 압인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흔히 한질을 이루는 문집의 경우 제1책에 장서인이 찍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해 〈도판 1〉에서 보듯 〈經古 819.53-G425c〉본은 제2책의 본문 제1면에 5과의 장서인이 압인되어 있고, 제14책에도 3과의 장서인이 압인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목록집의 인기 사항 외에 또 다른 장서인이 압인되어 있는 경우, 새롭게 발견한 8과의 장서인 역시 '장서인 1'에서처럼 근접사진촬영하고 각각의 정보를 수합해 〈표 3〉과 같은 형식으로 조사카드에 기입한다.



〈도판 1〉『청음선생집』 제2책

〈표 3〉『청음선생집』 장서인 정보

1. 서문 첫 장, 1과, 파일명: 經古 819.53-G425c_서문
장서인 1(鄭澔仲淳甫章): 5.0×5.0cm, 右下,
파일명: 經古 819.53-G425c_1
2. 2책 본문 첫 장, 5과, 파일명: 經古 819.53-G425c_2책 본문
1) 장서인 2: 2.8×2.7cm, 右上, 파일명: 經古 819.53-G425c_2
2) 장서인 3: 3.1×3.1cm, 右上, 파일명: 經古 819.53-G425c_3
3) 장서인 4: 3.5×3.5cm, 右中, 파일명: 經古 819.53-G425c_4
4) 장서인 5: 3.9×3.9cm, 右下, 파일명: 經古 819.53-G425c_5
5) 장서인 6: 4.2×4.2cm, 右下, 파일명: 經古 819.53-G425c_6
3. 14책 본문 첫 장, 3과, 파일명: 經古 819.53-G425c_14책 본문
1) 장서인 7(烏川): 1.9×1.9cm, 右中, 파일명: 經古 819.53-G425c_7
2) 장서인 8: 2.3×2.3cm, 右下, 파일명: 經古 819.53-G425c_8
3) 장서인 9: 2.4×2.4cm, 右下, 파일명: 經古 819.53-G425c_9

www.kci.go.kr

이렇게 해서 실사를 거쳐 누락된 8과의 장서인을 발견해 서지 정보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새로 발견한 장서인의 인문을 판독하는 일이다. 〈표 3〉과 같이 기존에 판독된 '장서인 1'과 새로 판독한 '장서인 7'은, 조사카드에 인문의 내용을 밝혀 기입한다. 그 밖에 인문 판독이 어려운 장서인은 주간 회의에서 조사팀 공동으로 판독을 수행한 후 미상인 인영만을 수합해 분기별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다.[7] 자문의 결과는 해마다 사업보고서에 수록되며, 대교(對校)를 거쳐 규장각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이로써 『청음선생집』 1건에 대한 장서인 조사가 일단락된다

첨언하자면, 『청음선생집』〈經古 819.53-G425c〉 본은 도서번호가 일러주듯 '경제문고'(經濟文庫)에 속했던 자료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경제문고는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경제연구소에서 수집한 도서이다.[8] 〈經古 819.53-G425c〉 본에는 16책의 각 책마다 마지막 장에 "購入"이라는 도장이 빠짐없이 찍혀 있는데, 이 도장은 해당 책이 경성제국대학 경제연구소의 명의로 구입된 것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이상의 단서를 조합해 보면 〈經古 819.53-G425c〉 본은 16책이 처음부터 한 질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고, 정호를 위시한 여러 인물의 장서가 영본(零本) 상태로 유통되었다가 20세기 초 어느 시점에 모종의 전문성을 지닌 인물에 의해서 완질로 정돈된 후 경성제국대학 경제연구소에 유상으로 납품된 것이라 추측된다. 이처럼 새롭게 발견된 장서인 정보는 목록집의 인기 사항으로 반영될뿐더러 해당 자료가 규장각에 유입되기까지의 과정을 재구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

7) 인문 판독의 최종 결과는 외부 자문(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김채식 책임연구원)을 거쳐 보완한 것이다. 당해 연도에 조사한 장서인은 내부 정리를 거쳐 그 다음해에 외부 자문을 의뢰하므로 현재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조사한 도서의 인문 판독이 완료되었다. 매해 집부 조사팀 장서인 자문을 맡아주시는 김채식 선생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8) 권태억 외 저, 2007 『경제문고 해제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2-10면. 조선경제연구소의 '경제문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규장각에 이관된 한적본이 총 173종 529책에 달했다고 한다.

www.kci.go.kr

3) 장서인 조사와 목록의 정비

2015년도 조사에서 확인된 목록의 인기(印記) 정보 수정은 원본 기준 91건에 달한다. 누락된 인기를 조사해 반영한 것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인기 판독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17건, 인기의 유무를 확인해 삭제한 것이 5건이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48건의 자료에 대한 인기 정보를 수정했는데, 누락 인기의 반영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서인 정보의 누락은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대별된다. 첫째는 하나의 문집에 여러 종류의 인장이 찍혀 있을 때 그 중 일부 인장만 판독해 기재한 경우이다. 예컨대 『동호집』(東湖集: 古 3436-14)은 현재 목록집에 인기 사항이 "山中人, 柳重序印 等"으로 기재되어 있다. "等"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몇 과의 장서인이 더 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원본을 조사한 결과 두 과의 인장을 추가로 찾을 수 있었다.

추가 인장 중 하나는 훼손이 심해 판독 불가였지만 나머지 하나는 '유경용인'(柳慶容印)으로 판독되었다. 인문(印文) 속 유경용(1718-1753)은 유명천(柳命天, 1633-1705)의 손자이다. 또한 '유중서인'(柳重序印)의 유중서(1779-1846)는 유명천의 4대손으로 유경용의 손자이다.[9] 잘 알려져 있듯 유명천 집안은 18세기 4대 만권당(萬卷堂)으로 손꼽히는 장서가 가문이었다. 누락된 장서인을 밝혀냄으로써 『동호집』이 유경용 세대에서 유중서 세대까지 진주유씨(晉州柳氏) 가문에 전래된 문헌임을 규명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별동집』(別洞集: 奎 4072)은 기존 목록집에서 인기 사항이 "洪純甫, 外閣, 帝室圖書之章"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조사 결과 '남양'(南陽), '홍계희인'(洪啓禧印), '순보'(純父)의 3과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남양은 홍계희의 본관이고 순보는 그의 자(字)이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홍계희(1703-1771)의

9) 유명천, 유경용, 유중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晉州柳氏世譜編纂委員會, 1983 『晉州柳氏世譜』, 27-30면 참조.

www.kci.go.kr

구장본이다.

아울러 『병산유집』(餠山遺集: 古 819.5-G423b) 역시 기존 목록집에는 "?山齋等"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사에 의해 '신야방민'(新埜放民), '만한산인'(晩閒山人)의 인장을 추가로 밝혀내었으며, '?山齋'는 '고산재'(高山齋)로 판독해 수정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왕발집』(王勃集: 奎中 4060), 『이서시화』(彛敍詩話: 古 3428-497), 『운와집』(芸窩集: 奎 4658) 등이 부분 누락의 사례에 해당한다.[10)]

다음으로 인기 누락의 두 번째 경향성은 인기 사항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누락한 경우이다. 『상무헌유고』(尙武軒遺稿: 奎 12682)에는 '선운'(仙雲)이라고 새겨진 인장이 찍혀 있고 『본암속집』(本庵續集: 奎 15619)에는 '박제익인'(朴齊翊印)이라고 새겨진 인장이 찍혀 있지만 현재 목록집에는 인기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매천집』(梅泉集: 가람古 819.6-H991m), 『배경당시집』(拜經堂詩集: 古 3428-494), 『송암집』(松巖集: 古 3428-664) 등이 전체 누락의 사례에 해당한다.

더욱이 『도암집』(陶菴集: 經古 819.54-Y58d)처럼 여러 종의 장서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정보가 아예 누락된 사례도 확인된다. 이재(李縡, 1680-1746)의 문집 『도암집』에는 '송계백열경'(宋啓栢悅卿)이라고 새겨진 백문방인(白文方印)과 '눌와'(訥窩), '송수연장'(宋守淵藏)이라고 새겨진 주문방인(朱文方印) 2과가 찍혀 있다. 송수연(宋守淵, 1745-?)과 송계백(宋啓栢, 1781-?)은 은진송씨(恩津宋氏) 집안의 후손이므로, 같은 노론계 학맥의 선배 문집을 대대로 소장한 것이다.[11)]

한편 인기 정보의 누락 다음으로 수정 비율이 높은 유형은 인기 판독의 오류이다. 인기 판독의 오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 목록집에 미상(未詳)으로 처리된 인문을 조사해 판독한 것으로 『보만재집』(保晩齋集: 一簑古 819.54-Se61b)이 해당한다. 『보만재집』에는 '규장지보'(奎章之寶), '극'(極), '만

10) 이상 인기 정보의 부분 누락 사례인 『동호집』, 『별동집』, 『병산유집』의 서지사항은 규장각, 1994 앞의 책, 1556면, 1585면 참조.

11) 이상 인기 정보의 전체 누락 사례인 『상무헌유고』, 『본암속집』, 『도암집』의 서지사항은 규장각, 1994 앞의 책, 1601면, 1587면, 1548면 참조.

www.kci.go.kr

기'(萬機), '여사도적'(餘事圖籍), '매양'(梅陽), '해평윤치수성여지인'(海平尹致秀成汝之印)의 총 6과 인장이 찍혀 있었는데, 목록집에는 일괄 미상으로 처리되었다.

둘째는 자형의 상사(相似)로 의한 오기(誤記)이다. '선성세보'(善城世寶)를 '선성세가'(善城世家)로 기재하거나 '이하곤인'(李夏坤印)을 '이시곤인'(李是坤印)으로, '고교형인'(高橋亨印)을 '고정형인'(高禎亨印)으로 기재한 것 등이다.[12] 주지하는 것처럼 이하곤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소론계 장서가였고,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는 일제강점기 조선불교사 연구자였다. 한국학 연구자에게 익숙한 성명인(姓名印)이 기존 목록집에 오기된 것이다.

셋째는 인문의 오독(誤讀)으로 인한 오류이다. 『수약헌유고』(守約軒遺稿: 古3428-311)는 현재 목록집에 "尹堉之印, 稚汭, 比境比時比意, 郁郁乎文哉"로 인기가 기재되었으나 그 중 '稚汭'는 '稚沃'을 오독한 것이고, '比境比時比意'는 '此境此時此意'를 오독한 것이다. 소장자 윤육(尹堉, 1803-?)의 자가 치옥(稚沃)이다. 『야연만록』(野淵漫錄: 가람古 819.54-Y97y) 역시 목록집에는 "野淵, 尹昌垕, 李原人尹昌垕子厚印"으로 인기가 기재되었으나 그 중 '李原人尹昌垕子厚印'은 '南原人尹昌垕子厚印'을 오독한 것이다. 저자이자 소장자인 윤창후의 본관이 '남원'(南原)이다.

그런데 인기의 오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인장이 찍힌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 예컨대 『만촌고』(晩村稿: 奎 4895)는 기존 목록집에서 "潘南朴氏, 宋喜汝受"로 인기가 기재되었으나 그 중 '송희여수'(宋喜汝受)는 '종희여수'(宗喜汝受)의 오기이다. 『만촌고』는 박종희(朴宗喜, 1775-1849)의 문집인데 박종희의 본관이 '반남'(潘南)이고, 자가 '여수'(汝受)이며 호가 '만촌'(晩村)이다. 인기로 보건대 『만촌고』는 저자의 수택본이다.

아울러 『둔와유고』(遯窩遺稿: 奎 6990)는 목록집에 인기가 "임선지인'(任珗之印)으로 기재되었지만 '임광지인'(任珖之印)을 오독한 것이다. 『둔와유고』는 임수간(任守幹, 1665-1721)의 문집으로 인문 속 임광(任珖, 1686-1743)은 저자의 아들이다.

12) '李夏坤印'을 '李是坤印'으로 기재한 것은, 인문에 나오는 '昰'를 자형의 상사로 인해 '是'로 혼동한 결과이다. '昰'는 '夏'의 이체자이다.

www.kci.go.kr

따라서 『둔와유고』는 저자가문의 소장본이다. 인기 정보의 오류로 인해서 저자의 수택본이라든가 저자가문의 소장본이라는 자료적 특징이 간과되어 버린 것이다.[13)]

끝으로 인기 수정의 마지막 유형은 인기의 유무를 확인해 삭제한 경우이다. 현재 목록집에는 『자저』(自著: 古 3447-15)의 인기로 "杞溪"가 기재되었지만, '기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장서인으로 보기 어렵다. 이 책은 본문 뒷면의 등사기(謄寫記)에 "昭和八年一月兪鎭贊氏所藏稿本ヨリ筆寫ス"라고 나오는 것처럼 1933년에 성립된 후사본(後寫本)이다.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필사가 진행되던 중, 원본에 찍힌 장서인의 내용을 필사자가 붉은 잉크로 본뜬 것이다. 『저암집』(著菴集: 古 3436-9)의 인기로 기재된 "兪星煥印, 景汝" 역시 필사 저본의 것을 임모한 것이므로 장서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밖에도 집부 도서의 편제면(編題面)에 새겨 찍힌 각종 패기(牌記) 역시 일괄 인기 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14)]

이상으로 『한국본목록』의 인기 정보 누락 및 오류의 경향성을 일별하고, 집부사업을 통해서 누락 인기 및 인기 오류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집부사업에서 규명한 『한국본목록』의 수정 사항 가운데 서발문(序跋文)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오류가 집계된 항목이 바로 장서인 정보이다.

서발문과 장서인에 대한 조사는 형태서지를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그 수록내용을 독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목록집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잣대 중 하나로 주기사항의 면밀함을 꼽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주기사항의 핵심적 부분인 장서인 항목에 대한 한층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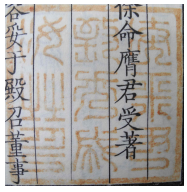
---

13) 이상 인기 판독의 오류 사례인 『보만재집』, 『수약헌유고』, 『야연만록』, 『만촌고』, 『둔와유고』의 서지사항은 규장각, 1994 앞의 책, 1586면, 1626면, 1637면, 1563면, 1550면 참조.

14) 이상 인기 정보의 삭제 사례인 『자저』, 『저암집』은 규장각, 1994 앞의 책, 1683면, 1686면 참조.

www.kci.go.kr

〈표 4〉 본고 제2장 제3절 관련 장서인

				
啓禧/洪印	悅卿/宋啓栢	汝之印/致秀成/海平尹	夏坤/李印	之印/尹堉
『別洞集』	『陶菴集』	『保晩齋集』	『松坡集』	『守約軒遺稿』

3. 장서인 분석과 도서의 이력 고구(考究)

1) 인기(印記)를 통한 편저자 추적

공간(公刊)되지 않은 필사본 문집의 경우, 서발문에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밝혀져 있지 않다면 그 저자나 편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때 그 책에 장서인이 찍혀 있다면, 저자나 편자의 신원을 확정하는 데 가장 유력한 정보가 된다.

이를테면 규장각에 소장된 『동행록』(同行錄: 一簑古 811.03-D717)이라는 작은 필사본은 당나라 시인(詩人) 한유(韓愈), 맹교(孟郊), 전기(錢起)의 장시(長詩) 3편을 묶고 간단한 주석과 해설을 덧붙인 책으로, 기존에 편자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권말에 달린 후지(後識)의 내용을 통해서 이 책이 영남 여행 중에 길벗[同行] 삼아 읽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적 취향의 산물로, 기유년(己酉年) 가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지만 정작 누가 언제 이 책을 엮었는지에 대해서는 결정적 단서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동행록』의 본문 제1면에는 〈도판 2〉와 같이 우측 하단에 '박씨종복도서기'(朴氏宗復圖書記)의 인장이 찍혀 있고, 우측 상단에 '석림사'(石林社)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아울러 본문 후지 말미에는 '희안'(希顔), '원화'(元華) 2과의 인장

www.kci.go.kr

이 찍혀 있다.[15] 이러한 인기 정보를 조합해보면 1807년에 진사시에 급제한 인물로 『사마방목』 및 『반남박씨세보』에 등재되어 있는 박종복(朴宗復, 1767-1821)이 이 책의 편자라는 추정이 가능케 된다.

박종복은 본관이 반남(潘南), 자는 희안(希顔)이고, 부친 박참원(朴參源)과 모친 한산 이씨(韓山李氏, 李思觀의 딸)의 장자(長子)이며, 명릉참봉(明陵參奉)과 금성현감(金城縣監)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16] 박종복의 고조부가 박태유(朴泰維, 1648-1696)이고 5대조가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인 점까지 소급해 본다면 '석림사'라는 인장은 박세당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양주 석림사(石林寺)[17]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되며, 편자 박종복이 속한 반남 박씨 일파의 지역적 연고를 나타내는 단서가 된다.

그리하여 『동행록』의 편자를 '박종복'으로 추적하고 나면, 후지에서 편자가 이 책을 엮었다고 한 '기유년'에 대해서도 편자 박종복이 23세 되던 1789년이라고 비정할 수 있다. 이로써 무명씨가 어느 기유년에 중국의 시를 베껴 엮은 것으로 모호하게 인식되었던 『동행록』은, 경기도 양주 지역을 근거로 서울에서 활동했던 명가(名家) 박세당 집안의 소장물이자 18세기말 수학기에 있던 20대 초반의 박종복에 의해 필사된 자료라는 구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인기 정보를 통해 편자와 간사 시기가 비정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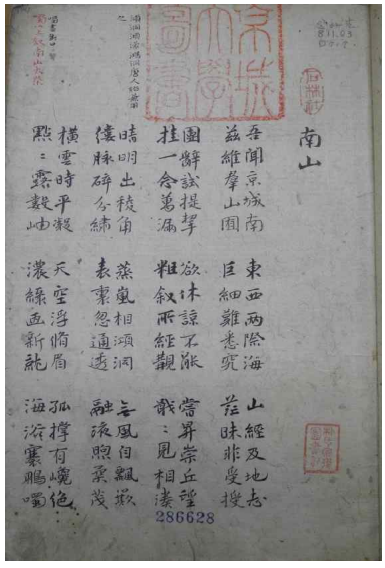
---

15) 『동행록』의 인기 사항은 규장각, 1994 앞의 책, 1556면에 "朴氏宗後圖書記, 石材社"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 결과 '희안'(希顔), '원화'(元華)의 인장 두 과를 추가로 찾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박씨종후도서기'(朴氏宗後圖書記)의 인기를 '박씨종복도서기'(朴氏宗復圖書記)로 수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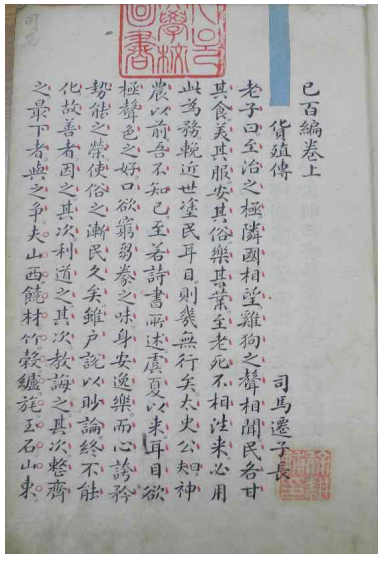
16) 潘南朴氏大宗中族譜編纂委員會, 2012 『潘南朴氏世譜』 제2권, 1350-1352면 참조. 한편 洪敬謨의 『冠巖全書』 冊4에 「金剛歸路, 到新安驛, 與淮陽守趙寬之晉和, 侍讀仲必民和, 金城守朴希顔宗復, 尹侍郎舜和尙圭, 鄭上舍一元東萬, 林雅士季鷹翰鎭, 李秀士聖望周翼 紀遊聯句」라는 長詩가 있어 박종복이 홍경모 등 비슷한 연배의 경화세족 자제들과 교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 석림사는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산에 현존하고 있다. 이 절은 박세당과 그의 차자 박태보(朴泰輔)가 김시습을 추모하기 위해 중창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근처에 박세당의 묘역 및 고택이 남아 있다. 이종묵, 2006 『조선의 문화공간』(3), 휴머니스트, 462-481면 참조.

www.kci.go.kr



〈도판 2〉『동행록』 본문 제1면



〈도판 3〉『기백편』 본문 제1면

규장각에는 박종복의 아우 박종훈(朴宗薰, 1773-1841)의 저술도 소장되어 있다. 필사본 『공필록』(恐筆錄: 古 3440-11)으로, 정조가 편찬한 『아송』(雅誦)에 대한 주석서이다. 박종훈은 28세 때인 1800년에 이 책을 엮고 서문을 썼다. 『공필록』은 이른바 문체반정의 일환으로 출간된 『아송』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적실한 자료이거니와 인기 정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한 가지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18]

『공필록』의 서문 제1면 우측 하단에는 '박칭수두중지인'(朴稱壽兜仲之印)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데, '박칭수'는 바로 전술한 박종복의 차남이다.[19] 『공필록』의 저

18) 『공필록』은 『아송』에 실린 주희 시문과 관련된 주요 전거를 고증한 것으로, 정조의 문체반정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편찬한 주석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선 2014년판 『규장각소장 귀중본도서 조사사업 Ⅱ』, 1897-1899면.

19) 『공필록』의 인기 사항은 규장각, 1994, 앞의 책, 1514면에 "朴稱壽兄中之印"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사를 거쳐 '兄中'을 '兜仲'으로 수정하였다. 『반남박씨세보』에 따르면 박칭수의 자가 '두중'(兜仲)이다.

www.kci.go.kr

자인 박종훈은 현달한 관료문인이었지만 후사를 두지 못하였다. 이에 백씨(伯氏)의 차남인 박칭수(1819-1860)에게 젊은 시절 손수 엮은 책을 물려준 것이다. 따라서 『동행록』과 『공필록』은 기왕에 상호 관련성이 없는 자료로 해석되었지만 인기 정보의 판독을 통해서 두 자료가 기실 박종복 형제의 수학기(修學期) 산물이라는 점, 오랜 기간 반남박씨 집안의 소장서로 보관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고구해낸 것이다.

한편 『기백편』(己百編: 奎 6244)은 중국 역대 명문장가의 산문 100편을 선별한 책으로 서발문이 없어 성립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도판 3〉에서 보듯 본문 제1면 우측 하단에 '서경보인'(徐畊輔印)이 찍혀 있고, 목록 제1면 우측 하단에 '임세'(任世)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이 책의 소유자가 서경보(徐畊輔, 1771-1839)임을 알게 해준다. 서경보는 순조대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이조판서와 함경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관료 문인이다. 그의 형 서영보(徐榮輔, 1759-1816)와 부친 서유신(徐有臣, 1735-1800), 조부 서지수(徐志修, 1714-1768), 고조부 서종태(徐宗泰, 1652-1719) 등 그의 가계 구성원 중에는 상신(相臣)의 반열에 오른 유력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서경보의 장서인이 찍힌 『기백편』은 달성서씨(達城徐氏) 집안의 구장본으로, 중국문학에 대한 이들 가문의 취향 및 선안(選眼)을 가늠케 하는 자료적 의미가 있다.

특히 『기백편』에 수록된 백여편의 산문은 대체로 고문(古文)의 전범(典範)에 해당하는 글들이다. 그리고 책 제목인 "기백"(己百)은 『중용』(中庸)에 나오는 "남이 한 번에 잘할 수 있다면 나는 백 번을 할 것이다"(人一能之, 己百之)라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이 책이 작문 학습을 위해 편찬된 것임을 잘 보여준다. 즉, 『기백편』은 서경보가 수학기에 문장 학습을 위해 애독한 수택본인 것이다.

이상 인기 정보에 입각해서 『동행록』 및 『기백편』의 편자를 각각 박종복과 서경보로 확정했으며, 나아가 이들 필사본이 엮어진 상황 및 편찬의도 등을 얼마간 재구해 보았다. 『동행록』과 『기백편』은, 조선후기에 비슷한 연배의 경화세족 자제들이 한문 문장을 학습하기 위해 엮은 필사본 문집이다. 이들 두 종의 자료는 반남박씨 가문과 달성서씨 가문이라는 명문가의 구장본이라는 사실에 더하여, 문인

www.kci.go.kr

관료로 일정한 성취를 이룬 인물들이 청년기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학업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로 여겨진다.

2) 인기를 통한 간사시기 비정

규장각에는 성수침(成守琛, 1493-1564) 구장본이 3종 소장되어 있다. 문집류로 『주문공교창려선생집(朱文公校昌黎先生集: 가람古貴 895.19-H19j)이 있고 경서류로 『논어집주』(論語集註: 古貴 1333-11)와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古貴 1343-5)가 있다. 3종 모두 한국본인데, 도서번호에 '貴'가 부여되어 귀중본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 책이 귀중본으로 선정된 데에는 성수침 인장의 유무가 주요 요인이 되었으리라 파악된다.

성수침은 중종과 인종 연간에 활동했던 경학자이다. 몰년이 1564년이므로 그의 인장이 찍힌 자료는 성립시기가 적어도 1564년 이전으로 올라간다. 규장각 귀중도서 지정기준 1항에 의하면 1623년 이전에 성립된 고사본(古寫本) 및 고간본(古刊本)은 귀중도서로 분류된다.[20] 따라서 성수침 구장본은 고본으로 판정되어 일괄 귀중도서 성립 요건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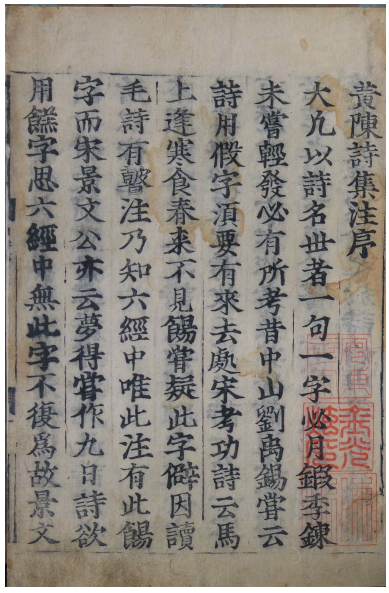
성수침 구장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장서인 소유자의 생몰년이 정확할 경우 인기 정보는 그 압인 자료의 간행시기를 비정하는 주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김주신(金柱臣, 1661-1721)의 문집 『수곡집』(壽谷集: 奎 5580)은 서발문이 없어 간행시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동종본에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의 인장이 찍혀 있어, 저자 몰년인 1721년에서 소장자 몰년인 1724년 사이에 『수곡집』이 초간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간본뿐만 아니라 필사본의 성립시기 역시 장서인 정보에 근거해 하한 연도를 비정할 수 있다. 『석은유고』(石隱遺稿: 古 3428-196)와 『옥국재유고』(玉局齋遺稿: 奎 7365)는 각각 한덕사(韓德師, 1675-1727)와 이운영(李運永, 1722-1794)의 문집으로 규장각에만 소장된 유일본이다. 먼저 『석은유고』에는 홍수보(洪秀輔, 1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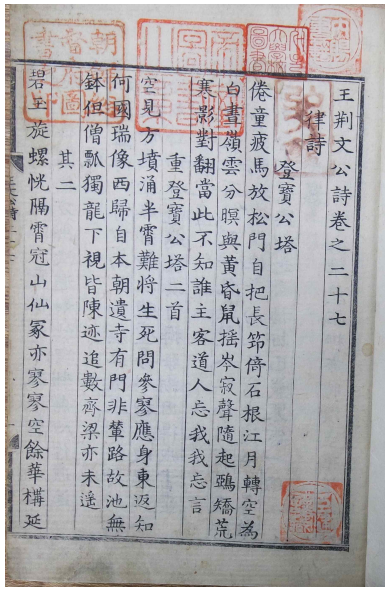
20) 규장각 귀중도서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2015년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정집』, 12면 참조.

www.kci.go.kr

1799)의 인장이 5과 찍혀 있는데, 홍수보는 저자 한덕사의 외손자이다.[21] 따라서 『석은유고』는 적어도 1799년 이전에 필사되어 홍수보에게 소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옥국재유고』에는 이희연(李羲淵, 1755-1820)의 인장이 5과 찍혀 있는데, 이희연은 저자 이운영의 아들이다.[22] 『옥국재유고』는 저자 말년까지의 작품을 두루 포괄하고 있으므로, 저자 몰년인 1794년에서 소장자 몰년인 1820년 사이에 성립된 것임을 미루어 헤아릴 수 있다.


黃陳詩集注序
大凡以詩名世者一句一字必月鍛季鍊
未嘗輕發必有所考昔中山劉禹錫嘗云
詩用假字須要有來去處宋考功詩云馬
上逢寒食春來不見餳嘗疑此字僻因讀
毛詩有饊注乃知六經中唯此注有此餳
字而宋景文公亦云夢得嘗作九日詩欲
用餳字思六經中無此字不復爲故景文

〈도판 4〉『산곡시집주』


王荆文公詩卷之二十七
律詩
登寶公塔
倦童疲馬放松門自把長節倚石根江月轉空爲
白晝領雲分暝與黃昏鼠搖岑寂聲隨起鷄矯荒
寒影對翻當此不知誰主客道人忘我我忘言
重登寶公塔二首
空見方墳涌半霄難將生死問參寥應身東返知
何國瑞像西歸自本朝遺寺有門非輦路故池無
鉢但僧瓢獨龍下視皆陳迹追數齊梁亦未遥
其二
碧玉旋螺恍隔霄冠山仙冢亦寥寥空餘華構延

〈도판 5〉『왕형문공시』

21) 『석은유고』에는 '豊山', '洪秀輔印', '君擇氏', '孫孫世度', '含翠堂藏書'의 인장이 찍혀 있다. 해당 인기는 규장각, 앞의 책, 1608면 참조. 참고로 홍수보의 본관이 풍산이고 자가 군택이며 호가 함취당이다.

22) 『옥국재유고』에는 '韓山李氏羲淵士靖', '韓山', '李羲淵印', '士靖', '大夢軒藏'의 인장이 찍혀 있다. 규장각, 앞의 책, 1649면에는 해당 인기가 "韓山李氏羲淵士請, 大夢軒藏 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정을 요한다. 참고로 이희연의 본관이 한산이고 자가 사정이다.

www.kci.go.kr

이와 같이 인기 정보를 근거로 간사시기를 비정하는 작업은, 기존에 귀중도서로 선정된 자료의 귀중본 여부를 재검하거나 새로운 귀중도서를 발굴하는 작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먼저 전자의 예로 『산곡시집주』(山谷詩集註: 古貴 3442-17)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책은 현재 목록집에 '고려판본'(高麗版本)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서번호에 알 수 있듯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문집에는 〈도판 4〉에서 보듯 '안동세가'(安東世家), '김광현인'(金光炫印), '회여'(晦汝)의 인장이 일렬종대로 찍혀 있다. 김광현은 안동김문의 김상용(金尙容, 1584-1647)의 아들로 회여는 그의 자이다.[23] 따라서 김광현의 생몰년 및 자료의 현존 상태를 고려할 때, 고려판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책의 가로 폭이 넓다는 점, 행간이 크다는 점, 어미에 흑구(黑口)가 나온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조선본과 유별되므로 고려판본으로 판정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김광현의 장서인, 인주(印朱)의 빛깔, 지질(紙質)로 보건대 17세기 즈음 자료로 보아야 온당하다.[24]

다음으로 인기 정보를 통한 귀중도서의 발굴 사례로 『왕형문공시』(王荊文公詩: 奎中 2254)를 살펴보기로 한다. 『왕형문공시』는 송대 왕안석(王安石)의 시집인데 여기에는 권건(權健, 1458-1501)의 인장이 찍혀 있다. 목록집에는 해당 문집의 인기 사항이 "弘文館, 永嘉文忠公後, 帝室圖書之章 等"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도판 5〉에서 확인되듯 실제 자료를 보면 본문 제1면에만 총 6종의 인장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맨 우측 상단에 찍힌 인장은 '내사서적'(內賜書籍)이고, 맨 우측 하단에 찍힌 인장은 '신건근장'(臣健謹藏)이다. 2종 모두 천원지방형(天圓地方形)의 백문인(白文印)이므로, 같은 시기에 일괄 제작되어 압인된 것으로 파악된다.[25]

---

23) 목록집에는 인장 중 '회여'가 '임여'(臨汝)로 판독되어 있다. 규장각, 앞의 책, 1597면 참조.

24) 『산곡시집주』(山谷詩集註: 古貴 3442-17)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외부 자문(자문위원: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을 거쳐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당해 연도 자문에서 해당 자료는 일본 활자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명되었다. 이를 포함해 집부 조사팀 판종 자문을 맡아주시는 옥영정 선생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5) 그밖에도 이 책의 본문 말미에는 '권건숙강'(權健叔强), '영가문충공후'(永嘉文忠公後), '흥어시입어예'(興於詩立於禮)의 인장이 추가로 찍혀 있다.

www.kci.go.kr

이들 두 과의 장서인과 관련해서 『성종실록』에는 왕안석 시집의 명간(命刊) 기록과 반사(頒賜) 기록이 모두 실려 있어 주목을 요한다. 1485년 1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성종은 『왕형공집』(王荊公集)을 갑진자(甲辰字)로 인쇄하게 했고, 곧이어 3월 3일 기사에 따르면 새로 찍은 『왕형공시집』(王荊公詩集)을 문신들에게 하사하였다고 한다.[26] 이와 같은 실록의 내용으로 보건대 『왕형문공시』〈奎中 2254〉본은 1485년에 성종의 명간으로 제작된 갑진자본(甲辰字本)으로 판단된다. 성종이 여러 신하에게 하사한 『왕형공시집』 가운데 당시 도승지로 있던 권건에게 내린 책이 홍문관(弘文館)에 유입되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왕형문공시』〈奎中 2254〉본은 15세기의 고간본이라는 점, 더욱이 갑진자가 주조된 바로 그 해에 인출된 책이라는 점, 나아가 성종의 내사서적이라는 점에서 귀중도서로 지정해야 할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인기 정보의 조사를 통해서 해당 자료가 고간본, 갑진자본, 내사본이라는 사실이 종합적으로 규명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왕형문공시』의 사례는 장서인 조사가 목록 정비를 위한 기초 작업에 그치지 않고, 문헌의 자료적 가치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겠다.

〈표 5〉 본고 제3장 제2절 관련 장서인

琛仲玉/學成守/昌寧後	秀輔/洪印	士靖/羲淵/李氏/韓山	炫印/金光	謹藏/臣建
『朱文公校昌黎先生集』	『石隱遺稿』	『玉局齋遺稿』	『山谷詩集註』	『王荊文公詩』

26) 『성종실록』의 해당 기사는 다음을 참조: "己酉傳于承政院曰: '今以甲辰字, 將印唐書, 然先可印『王荊公集』.' 承旨等對曰: '『王荊公集』有二, 一有註, 一無註, 若印有註册, 則甲辰鑄字時, 未及鑄, 印出爲難.' 傳曰: '雖無註, 其印之.'"(成宗16年 1月 26日條): "賜新印『王荊公詩集』于文臣等."(成宗16年 3月 3日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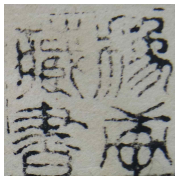
www.kci.go.kr

3) 인기를 통한 소장자 고구

장서인의 검토를 통해 자료들 사이의 내밀한 관계망이 드러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 중 하나가 규장각에 소장된 책들의 원소장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작업은 역사상 유명한 인물이 어떤 책을 소장하고 있었는지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컨대 홍가신(洪可臣, 1541-1615)의 『만전선생문집』(晩全先生文集: 奎 7164)은 3책의 활자본으로서 간행 시기는 영, 정조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본문 1면에 '상헌장서'(橡軒藏書)와 '안정복인'(安鼎福印)이 압인되어 있다. '상헌'(橡軒)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호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두 장서인은 이 책이 유명한 실학자 안정복의 장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홍가신이 근기(近畿) 남인(南人)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는바, 『만전선생문집』은 간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비슷한 정치색을 지닌 안정복의 장서로 편입된 것이다. 그 외 조임도(趙任道, 1585-1664)의 『간송선생문집』(澗松先生文集: 奎 11650)과 권근(權近, 1352-1409)의 『양촌선생문집』(陽村先生文集: 一簑古 819.51-G995y)에도 안정복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 그의 장서 중 일부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경로를 거쳐 규장각에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27]

〈표 6〉 본고 제3장 제3절 관련 장서인(1)

				
藏書/橡軒	鼎福/安印	翁/豹	印信/淵古堂/沈氏	應寅/李印
『晩全先生文集』	『晩全先生文集』	『眉叟記言』	『眉叟記言』	『眉叟記言』

27) 한편 집부 자료는 아니지만 『家禮附贅』(奎 5569)과 『高麗史』(奎 7157)에서도 안정복의 장서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안정복의 필사본 『雜同散異』(古 0160-12) 역시 본원에 소장되어 있다. 위에 언급된 『澗松先生文集』(奎 11650)과 『陽村先生文集』(一簑古 819.51-G995y) 등 여러 자료들에 도서번호를 붙인 방식이 적어도 3가지인 것을 보면 이 책들은 한 가지 경로로 규장각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www.kci.go.kr

다음으로 허목(許穆, 1595-1682)의 『미수기언』(眉叟記言: 古 0270-8)에는 적어도 세 사람이 찍은 서로 다른 장서인이 총 7과 있어, 도서의 유통 경로를 보여준다. 서문 1면에 찍힌 '표옹'(豹翁)은 이 책을 처음 소장한 이가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이었음을 알려 준다.[28] 허목의 문집은 이봉징(李鳳徵, 1640-1705)이 전라도관찰사로 재직 중이던 1692년경 목판본으로 초간되었고 중간본이 나온 것은 1905년에 이르러서이므로,[29] 강세황의 인장은 이 책이 초간본이라는 증거도 된다.

또한 『미수기언』의 본문 1면 하단에는 '의평사인'(宜平私印)이 압인되어 있다. 같은 면에 '심씨연고당인신'(沈氏淵古堂印信)이라는 장서인이 더 있는바, 이후 책의 주인이 심의평(沈宜平, 1836-1919)[30]으로 바뀌었음이 드러난다. 심의평은 구한말 장서가로 일정한 명성이 있던 인물로, 그의 당호 중 하나가 연고당(淵古堂)이다.[31]

그런데 『미수기언』의 본문 마지막 장에는 또 다른 사람의 장서인이 압인되어 있다. '이응인'(李應寅)이라는 그 인물의 신원은 아직 확정된 적이 없으나, 일본 동양문고 소장의 『여사제강』(麗史提綱) 및 『국조보감』(國朝寶鑑)에 동종의 장서인이 있는 것으로 보건대,[32] 그 역시 한 사람의 장서가로 고려해야 할 듯하다. 『여사제강』 등에는 '이응인인'(李應寅印)과 더불어 '김산세가'(金山世家)라는 적관인(籍貫印)이 더 있는바, 이를 단서로 추적해 보면 『미수기언』의 소장자 이응인은 병인양요 당시 오페르트와 대담하였던 문정 역관(問情譯官)으로 본관이 김산인 이응인과 동일인이라 판단된다.[33] 『잡과방목』에 등재된 역과(譯科) 합격자 중에 김산 이

28) 또한 같은 책 목록 1면에는 "光之"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는데 이는 강세황의 자(字)다. '光之'의 아래에 '貢白室'이라는 문구의 장서인이 1과 더 있으나 이 장서인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후고를 요한다.

29) 류탁일, 2000 『성호학파의 문집간행 연구』, 부산대학교출판부, 56-59면.

30) 靑松沈氏大同世譜刊行委員會, 2002 『靑松沈氏大同世譜』 제3권, 1541면 참조.

31) 박철상, 2008 「石蘭室新訂藝苑三昧」, 『고서해제: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평민사; 최식, 2013 「藏書家 沈宜平의 문예활동과 編著」, 『동방한문학』 54

32)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지사항 및 이미지 정보를 참조했다(자료UCI: RIKS+CRMA+KSM-WU.1667.0000-20140331.TOYO_0728).

33) 병인양요에 대한 편자 미상의 자료집인 『赤虎記』에 江華 昇天堡에서 엠페러호의 오페르트와 대담한 問情 譯官 方禹敍와 李應寅의 問答草가 실려 있다. 『승정원일기』 고종 3년

www.kci.go.kr

씨(金山李氏)인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집안은 대대로 역관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배출한 중인 계급으로 파악된다.

이응인은 본관이 김산(金山: 김천)이고 자가 사협(士協)이며 1829년에 태어나 1849년 역과에 합격한 인물이다. 그의 집안은 이응인의 7대조인 이분(李芬: 1619년생으로 1633년에 역과 합격) 이래로 꾸준히 역관의 직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아 유서 깊은 중인 가문의 하나였던 것이 확실하다.[34] 자신의 관향과 이름을 드러낸 이응인의 장서인에서 중인 가문의 구성원이자 구한말의 직능인으로 활약한 그의 가문의식과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이익(李瀷, 1681-1763)의 『성호선생문집』(星湖先生文集: 古 3428-90)에는 일반적인 장서인과는 좀 다른 형식의 인장이 찍혀 있다. 목록 3면과 4면에 걸쳐 찍혀 있는 이 인장은, 두 조각을 합치면 지름 1.2cm의 둥근 모양이 되며 그 인문은 '장길상'(張吉相)으로 판독된다. 장길상(張吉相, 1874-1936)은 장현광(張顯光, 1544-1637)의 후손으로 규장각 직각을 지냈으며 일제 강점기 초반 은행가이자 대구의 부호로 유명한 인물이다.

원래 이익의 문집은 1917년과 1922년에 각각 간행된 바 있다. 〈古 3428-90〉의 필사본은 그 두 간본과는 내용과 체재가 다르며 그 전사(轉寫) 경위나 전래 과정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35] 다만 이 책에 장길상의 이름이 표시된 것은 1922년 간본 『성호전집』 간행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남규(李南珪, 1855-1907)가 산정한 원고를 바탕으로 『성호선생문집』의 간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선현의 원고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일어나 1921년에 전집(全集)의 간행이 다시 추진되었는데,

---

(1866) 7월 23일조에 "又啓曰: '番舸之倏來倏往, 雖非事理言語之所可及, 而江華問情譯官李應寅, 屢入彼船, 不無其勞, 令該院施賞.'"이라 하여 강화 異樣船의 문정 역관에게 施賞하기를 의정부에서 청했을 때 이응인이 상을 받을 대상으로 언급되었음이 확인된다.

34) 한편 李芬의 先代 역시 전공을 달리 하여 『잡과방목』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 이분의 부친 李長榮은 1602년생이며 1628년에 籌學 전공으로 합격하였고 이장영의 조부 李嗣興은 籌學敎授를, 증조부 李世卿은 內醫院正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35) 다만 여타 간본과 내용을 비교한 결과 1922년 판본을 간행하기 위해 필사하고 교정한 고본(稿本)으로 추정되었다.

www.kci.go.kr

이 때 힘을 실어 준 유수한 인사들 가운데 장길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36] 실제로 1921년 4월 1일자의 「성호이선생전집영간도회시파임록」(星湖李先生全集榮刊道會時爬任錄)에는 "전(前) 직각 장길상"이 "감정"(監正)의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37] 이는 이 책에 보이는 교정 작업의 흔적과 상응한다.[38] 따라서 장길상의 인장은 이 책이 『성호전집』 간행을 위해 제작된 교정고본(校正稿本)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표 7〉 본고 제3장 제3절 관련 장서인(2)

嘉/永	五/元	漢印/金福	山/志	鹿群/松友
『梅泉集』	『梅泉集』	『梅泉集』	『梅泉集』	『梅泉集』

다음은 황현(黃玹, 1855-1910)의 『매천집』(梅泉集: 가람古 819.6-H991m)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책은 도서번호에서 알 수 있듯 가람 이병기(李秉岐, 1891-1968)의 장서였던바 본문 1면에 "매화옥진완"(梅華屋珍玩)이 압인되어 있고,[39] 같은 면 하단과 본문 최종면에는 3과와 2과의 장서인이 각각 더 있다.

장서인의 인문을 조합하면 이병기에 앞서 『매천집』을 소장했던 이는 영가(永嘉) 즉 안동(安東)을 관향(貫鄕)으로 둔 김복한(金福漢, 1860-1924)으로 밝혀진다.

36) 류탁일, 앞의 책, 105-108면.

37) 위의 책, 322-323면.

38) 이 책에는 주묵 등으로 교정한 흔적이 다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오, 탈자에 대한 지적이 많다. 간본 문집과 대조해 보면 이 지적이 거의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9) '매화옥'이 이병기의 서재 이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강명관, 2015 「한국의 장서가들」, 『경향신문』 8월 27일자 참조.

www.kci.go.kr

그의 자가 원오(元五)이고 호는 지산(志山)인바 위에 제시한 인문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12대손인 김복한은 1892년 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교리와 성균관대사성 등을 지낸 조선 말기의 유력한 문신이었으나, 갑오경장 이후 벼슬을 버리고 후진을 양성하는 한편 의병활동에 가담하였다. 『매천집』이 간행되던 1911년 전후로는 일제의 감시 속에 두문불출하는 생활을 하였으나 이후로도 3.1운동과 파리장서사건에 간여하는 등 조선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마지막의 한문인(閒文印) "송우록군"(松友鹿群)은 '소나무와 벗 삼고 사슴과 한 무리가 된다'는 뜻인데, 『매천집』을 소장할 당시 김복한의 내면세계를 추정케 하는 단서로 읽힌다.

그렇다면 망국의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한 김복한의 수택본 『매천집』은 어떤 경로로 이병기의 서재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송남수(宋枏壽, 1537-1626)의 『송담집』(松潭集: 古 3428-473)에 찍힌 지름 1.1×0.8cm 타원형 도장이 주목된다. 이 책 서문과 본문 1면 및 최종면에는 '송신용'(宋申用)이라는 이름의 도장이 찍혀 있다. 송신용(宋申用, 1884-1962)은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전문적인 서적중개상으로, 그가 이 책을 소장한 것은 저자와 같은 은진송씨 가문의 일원이어서라기보다는 직업상의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41]

송신용은 사회 저명인사들과 학자, 대학교수들과 빈번히 교유하며 서적 거래를 하였는데, 그의 주요 고객 중에는 위에 언급된 『매천집』의 소장자 이병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병기는 자신의 일기에서 '송신용 군'을 통해 『야연만록』(野淵漫錄: 가람古 819.54-Y97y)과 『수주적록』(愁州謫錄: 가람古 910.4-Su44)을 구입했다고

40) 김복한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는 김상기, 2001 「근대의 유교학맥과 민족운동: 김복한의 홍주의병과 파리장서 운동」, 『대동문화연구』 39 참조.

41) 이민희, 2009 「서적중개상 송신용 연구」, 『고소설연구』 27집. 이민희 교수의 전언에 따르면 송신용은 자신이 취급한 도서의 일부에 2종 이상의 장서인을 찍었으며, 그 중에는 이른바 막도장 형태의 것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송신용은 서울대학교에 여러 종류의 古書를 납품한 적이 있으므로 『松潭集』(古 3428-473)에 찍힌 도장도 그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다.

www.kci.go.kr

적고 있는데,[42] 윤창후의 저술인 두 필사본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서적중개상을 통해 이병기의 소유가 된 책의 일부가 현재 규장각의 장서로 들어온 경로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애초에 우국지사 김복한의 소유였던 『매천집』이 그의 사후 어느 시점에 이병기의 장서로 편입된 과정에도 꼭 송신용이라 확정할 수 없을지언정 그와 같은 서적중개상이 개입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송신용의 인장은, 고서를 수집하여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혹은 고서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서적중개상[43]이라는 전문가 집단의 존재를 알려주는 증좌인 것이다.[4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장각 소장 집부 자료에 압인된 장서인은, 그 원래 소장자 중에 안정복이나 강세황과 같은 뛰어난 문인과 학자, 김복한과 같은 한말의 독립운동가 등 역사상 유수한 인물들이 다수 있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우선 눈길을 끈다. 그리고 『미수기언』과 같이 강세황과 심의평, 이응인 등 여러 사람 명의의 장서인이 연속적으로 찍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유통경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울러 『성호전집』의 교정고본에 찍힌 장길상의 인장은 그 주인이 해당 문집의 간행에 직접적으로 간여했음을 알려주고, 『송담집』에 찍힌 서적중개상 송신용의 도장은 그가 취급한 책들 중 규장각의 장서가 된 자료가 상당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이처럼 장서인의 분석을 통해 책과 그 소장자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단순히 책의 원래 주인을 밝히는 호사 취미에 그치지 않으며, 그 책이 편찬되고 유통되던 당시의 사회상을 재구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

42) 이병기, 1976 『가람日記』, 新丘文化社. 470면(1936년 11월 14일조) 참조.

43) 이와 관련하여 이민희, 2011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李秉岐 연구: 『가람일기』에 나타난 고서 수집 및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집 참조. 이에 따르자면 이병기와 거래한 서적중개상은 송신용 외에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44) 이러한 서적중개상 집단의 존재는 본고 제 2장 2절에서 언급한 『淸陰先生集』(經古 819.53-G425c)이 여러 소장자로부터 유래한 영본이 합쳐진 형태로 완질이 되어 조선경제연구소에 판매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www.kci.go.kr

4. 장서인 조사의 학술적 의미

1) 조선시대 민간의 장서문화

장서문화가 조선후기의 문화현상으로 일컬어지며 거론되는 인물 중에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이 있다. 장서가로서 이하곤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적지 않으며, 그의 장서 규모는 그의 서재인 완위각(宛委閣)에 붙은 '만권루'(萬卷樓)라는 별칭에서 이미 짐작이 된다.[45]

규장각 소장 집부 자료 중에도 이춘영(李春英, 1563-1606)의 『체소집』(體素集: 古 3428-298), 이해창(李海昌, 1599-1651)의 『송파집』(松坡集: 奎 6328), 오숙(吳翽, 1592-1634)의 『천파집』(天坡集: 古 3428-297) 등 '이하곤'(李昰坤), '재대'(載大), '담헌'(澹軒), '만권루장'(萬卷樓藏) 등 이하곤의 인장이 압인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46] 아울러 자부(子部)자료 중 『근사록』(近思錄: 古 1343)과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古 1344)에는 '월성지이'(月城之李), '하곤'(夏坤), '완위각도서기'(宛委閣圖書記)와 더불어 '선사지기'(宣賜之記)라는 문구의 인장이 찍혀 있다. '선사지기'는 해당 도서마다 적혀 있는 "康熙四十七年五月二十六日, 內賜行吏曹判書李寅燁"이라는 내사기(內賜記)와 조응하는 것으로, 이 두 책이 이인엽(李寅燁, 1656-1710)에게 하사된 것임을 증명한다. 이처럼 이하곤의 완위각에는 그의 선친 이인엽이 국왕에게 하사받은 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목은시정선』(牧隱詩精選: 古 3447- 21) 본문 1면 상단에는 예의 '만권루장'이 압인되어 있고, 하단에는 '월성후인이시발양구'(月城後人李時發養久) 즉 그의 증조부 이시발(李時發, 1569-1626)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 이 책이 오랜 선대(先代)의 유물임을 표시한다.[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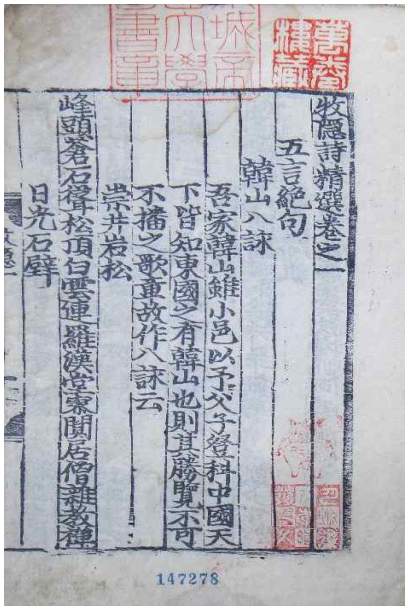
---

45) 이 점에 대해서는 박철상, 2002「만권루와 이하곤의 장서인」, 『문헌과해석』 20; 박용만, 2008「완위각의 전적수집과 문화적 의미에 대한 고찰」, 『서지학보』 32 참조.

46) '李昰坤'에서 '昰'는 '夏'의 이체자인바 이는 이하곤의 성명인이고, '載大'는 이하곤의 자며 '澹軒'은 그의 호다.

47) 한편 규장각 소장의 이시발 문집 필사본 『碧梧遺稿』(奎 15711)에는 "昭和四年七月日鎭川

www.kci.go.kr


牧隱詩精選卷之一
五言絶句
韓山八詠
吾家韓山雖小邑以予父子登科中國天
下皆知東國之有韓山也則其勝覽不可
不播之歌童故作八詠云
崇井岩松
峰頭蒼石聳松頂白雲連羅漢堂東閒居僧雜教禪
日光石壁
147278

〈도판 6〉『목은시정선』

충북 진천 초평에 있었던 완위각은 20세기 초반까지 그 명성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나,[48] 현재로서는 후손가에 남은 700여 권과[49] 규장각에 남아 있다고 알려진 100여 권 등 영성한 자료만이 현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하곤 장서의 애초 규모를 재구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보존상태가 우수한 규장각 소장 자료들은 무척 귀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하곤의 장서각은 그 증조부인 이시발의 시기에 형성되어 20세기 초까지 유지되며 진천과 안성 등 인근지역의 소론계 문인에게 오랫동안 문화적 거점이 되어 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 안산 지역에 세거한 진주 유씨가를 중심으로 한 남인계 문인들에

郡李景鍾所藏寫本ニ依リ謄寫ス"라는 刊寫記가 표시되어 있는데,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진천 후손가의 필사본을 빌려 등사하였음을 알려주는 이 문구를 통해 1929년 당시까지 이하곤의 장서 가운데 이시발의 문집 필사본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실 간사기 중의 '李景鍾'은 '李鍾景'의 誤字다. 경주이씨 익재공파의 37대손인 이종경(1844-?)은 이시발의 후손이자 李圭書의 아들로 진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벽오유고』 외에 李寅炳(1651-?. 이인엽의 백씨)의 『樊圃遺稿』(奎 15710) 등 선대의 유고를 더 보관하고 있으며 조선총독부에 대여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48) 규장각 소장 『白雲文抄』(古 3436-11)의 저자이자 19세기 양명학의 계승자로 평가받는 沈大允(1806-1872)은 진천 인근인 안성에 거주하며 강학활동을 했는데 그 역시 완위각 장서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주요 제자 중 한 사람인 李曦榮(1821-1868)이 바로 이하곤의 4세손이다(김하라, 2016 「심대윤의 자기서사」, 『19세기 한 실학자의 발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또한 심대윤의 제자이자 이희영의 인척으로 진천에 거주했던 문인 鄭寅杓(1855-1935)는 1922년 당시 완위각의 모습을 "長物書萬卷, 錦裝架棟充"이라 하여 비단으로 장정한 일만 권의 귀중한 책들이 시렁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묘사했다.(『春耕臺集』, 「坪莊」)

4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진천군, 2012 『鎭川 宛委閣址 遺蹟: 鎭川 宛委閣址 發·試掘調査 報告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참조.

www.kci.go.kr

게도 청문당(淸聞堂)과 경성당(竟成堂)에 마련된 장서각이 있었다. 특히 청문당의 만권루는 기호 남인들의 학문적인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유명천(柳命天, 1633-1705)과 유명현(柳命賢, 1643-1703) 형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만권루의 장서는 그들의 손자 유경종(柳慶種, 1714-1784)이 타계한 이래 온전히 유지되지 못했다. "남인인 유명현의 집안에는 본디 기이하고 희귀한 책들이 많이 있기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 자손이 집안의 오래된 책들을 많이 팔고 있는 중"[51]이라는 언급이 유만주(兪晩柱, 1755-1788)의 일기 『흠영』(欽英: 古 0320-25)에 있어, 1784년 당시 진주 유씨가의 장서가 척매되던 상황이 추측된다.

그런 가운데 문덕교(文德敎, 1551-1611)의 『동호집』(東湖集: 古 3436-14)에 압인된 장서인 2과는 이 책이 현존하지 않는 또 다른 '만권루'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알려준다. 서문 1면의 '유중서인'(柳重序印)과 본문 1면의 '유경용인'(柳慶容印)에 나타난 유경용(柳慶容, 1718-1753)과 유중서(柳重序, 1779-1846)는 모두 유명천과 유명현의 후손이다. 그 중 유경용의 인장은 진주 유씨가의 장서각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압인된 것이다. 유중서가 장서인을 찍은 것은 그보다 후대의 일로, 유만주가 기록한 척매의 시점 이후에도 이 집안의 장서가 일정 정도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하곤과 유중서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어떤 장서각이나 장서가는 오랜 동안 한 가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학파나 당파를 대변하며 그 거점이 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기호지역의 소론 및 남인 외에 영남 남인 중에서도 유력한 장서가가 산견된다.

『지봉선생집』(芝峯先生集: 一簑古 819.53-Y63jb)에는 '금성박씨회무서화보'(錦城朴氏檜茂書畵寶)라 하여 박회무(朴檜茂, 1575-1666)의 인장이 찍혀 있다.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 一簑古 895.11-D85ba), 『당유선생집』(唐柳先生集: 想白古 895.1443-Y92d) 등 집부에 속한 자료에서 동일한 인장을 볼 수 있고, 경부(經部)

50) 김영진, 2010「海巖 柳慶種의 잡록 『破寂』 연구」, 『한문학논집』 30, 근역한문학회.

51) 『欽英』 1784년 12월 4일조 "聞南人柳命賢家, 以素多奇文僻書, 聞今其子孫多賣舊書, 如『全史』二百卷, 亦方求易, 要獲見其書目."

www.kci.go.kr

에 속하는 『배자예부운략』(排字禮部韻略: 가람古貴 495.13-B146) 및 『대광익회옥편』(大廣益會玉篇: 가람古貴 495.13-J563d), 자부에 속하는 『신편고금사문유취』(新編古今事文類聚: 一簑古貴 039.51-B85s) 등 귀중본 자료에서도 동종의 인장이 발견되어 그가 주목할 만한 장서가임을 방증한다.[52] 박회무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장서를 지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규장각에 전해진 귀중한 자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53]

규장각 소장 집부 자료 중에는 정광원(鄭光源)이라는 인물의 인장이 찍힌 것도 다수 있다. 『금계선생문집』(錦溪先生文集: 古 3428-522), 『하당선생문집』(荷塘先生文集: 古 3428-526), 『반간선생문집』(槃澗先生文集: 古 3428-548), 『노암선생문집』(魯庵先生文集: 古 3428-600), 『선계선생문집』(仙溪先生文集: 古 3428-674), 『사헌문집』(思軒文集: 古 3478-572) 등이 그 일부이다. 이 책들에는 '정광원인'(鄭光源印)이라는 성명인과 더불어 '서원지세'(西原之世)라는 적관인이 찍혀 있어 소장자 정광원이 청주 정씨임을 알 수 있다. 소장한 문집의 저자나 서발문 작성자 등 관련자들이 이광정(李光庭), 이상정(李象靖), 정종로(鄭宗魯) 등 안동을 위시한 경북 북부지역에서 활동하던 남인 문인으로 분석되는바, 소장자 정광원을 같은 성향을 지닌 영남 남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소장 자료 중 『노암선생문집』과 『사헌문집』의 저자가 각각 정필규(鄭必奎)와 정내성(鄭來成)으로 경북 예천 등지에 세거한 청주 정씨의 일원이기도 하므로, 정광원 역시 그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규장각 집부 자료의 장서인을 분석하여 드러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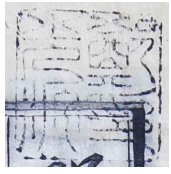
52)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2년 경술(1610) 윤3월18일조에 "영천(榮川: 경북 영주)의 진사 박회무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책본을 올리니, 전교하기를, '이는 바로 평소에 보고 싶었지만 얻지 못했던 것이다. 매우 기쁘다.'하였다"(榮川進士朴檜茂進『龍飛御天歌』冊本, 傳曰: "此乃平日願見, 而未得者, 深用嘉悅.")라는 기록이 있어 장서가로서 국왕에게 책을 진상한 그의 행적이 확인된다.

53) 박회무는 자신이 소장한 『爾雅』를 戰火로부터 지키기 위해 땅에 묻어 두었으며, 이후 다시 파내어 새로이 배접했다고 한다.(박철상, 2016 「18세기 서울 지식인의 서재」, 『서울역사박물관대학 자료집』, 5월 25일 강연 내용)

www.kci.go.kr

어떤 책들이 한때 특정한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전사(前史)이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이나 그의 가문의 서재를 채우던 수많은 책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규장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서인의 분석과 규명은, 조선의 유력 장서가를 확정하거나 재구하여 민간의 장서문화 및 로컬 히스토리에 대한 기술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표 8〉 본고 제4장 제1절 관련 장서인

				
重序/柳印	容印/柳慶	書畵寶/氏檜茂/錦城朴	光源/鄭印	之世/西原
『東湖集』	『東湖集』	『芝峯先生集』	『槃澗先生文集』	『槃澗先生文集』

2) 조선시대 왕실의 장서관리

일반적으로 장서인은 인장의 사용자에 따라 관인(官印)과 사인(私印)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민간의 인장은 사인(私印) 혹은 사가인(私家印)으로 분류되는 반면, 왕실에서 사용한 국새(國璽), 보인(寶印), 관청에서 사용한 각종 인장은 관인(官印)으로 분류된다. 정조(正祖)의 장서인에서 알 수 있듯 국왕이 개인 장서인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국왕의 상징적 의미 및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해 국왕 관련 인장 일체를 관인으로 분류해 기술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한국본 별집류 도서 가운데 국왕의 개인 장서인이 찍힌 대표 자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조의 장서인이 찍힌 자료로는 『어우집』(於于集: 奎7496)과 『무술초추사장』(戊戌初秋辭章)이 주목된다.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어우집』은 현재 목록집에 인기 사항이 "帝室圖書之章 等"으로 표기되었지만, 실사 결과 본문 제1면에 '연잉군장'(延礽君章)이 찍혀 있음을 확인

www.kci.go.kr

하였다. 『무술초추사장』은 박치원(朴致遠, 1680-1764)이 1718년(무술)에 대간에 재직하면서 올린 7편의 글을 묶은 것으로 「연잉군과 연령군에게 올리는 글」(延礽君延齡君上書) 등이 실려 있다. 『어우집』과 『무술초추사장』 모두 영조가 대군 시절 소장했던 자료이다.

정조의 장서인이 찍힌 문집은 기존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간이집』(簡易集: 奎1679), 『아계유고』(鵝溪遺稿: 奎4761) 등 대단히 여러 종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우암후집』(尤庵後集: 奎4855)이 주목된다.[54] 『우암후집』은 1717년에 간행된 초간본 『우암집』에 누락된 글을 모은 것으로, 정조의 장서인이 무려 10종이나 압인되어 있다. 여기에 찍힌 주문인(朱文印) '춘궁'(春宮), '세보'(世寶), '홍재'(弘齋), 백문인(白文印) '춘궁', '취경작사'(炊經酌史), '연월자청진'(煙月資淸眞), '운작심월작성'(雲作心月作性), '하가일일무차군'(何可一日無此君), '진궁지장'(震宮之章), '관물헌'(觀物軒)이 모두 정조의 것이다. 『우암후집』은 한국본 문집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정조 장서인이 찍힌 자료로, 정조의 송시열에 대한 현창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익종(翼宗)과 헌종(憲宗)의 장서인이 찍힌 문집도 확인된다. 먼저 『삼연집』(三淵集: 奎 7296)과 『수재유고』(壽齋遺稿: 奎 7648)에는 '경헌'(敬軒), '관문루청사'(觀文樓淸事) 등의 인장이 찍혀 있어 익종의 소장본임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금릉집』(金陵集: 奎 1603, 1604), 『영옹속고』(潁翁續藁: 奎 1757), 『영옹재속고』(潁翁再續藁: 奎 3104)에는 '원헌'(元軒)의 인장이 찍혀 있어 헌종의 소장본임을 알게 해준다.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헌종의 인장이 찍힌 문집은 『보만재집』(保晩齋集)을 포함해서 도합 4종인데, 그 중 3종이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문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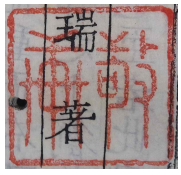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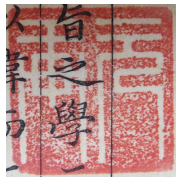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조선시대 임금으로 정조가 유일하게 개인 장서인을 사용했다는 기왕의 논의는 재검을 요한다. 명찬서(命撰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본 별집류 도서 가운데 영조, 익종, 헌종의 인장이 찍힌 자료가 두루 확인

54) 한국본 도서에 압인된 정조 장서인에 대해서는 김영진 외, 2014 「정조(正祖)의 장서인(藏書印)-규장각 소장 조선본(朝鮮本)을 중심으로」, 『규장각』 45, 103-133면 참조.

www.kci.go.kr

되기 때문이다. 중국본까지 조사의 외연을 넓히면 순조(純祖)와 철종(哲宗)의 장서인이 찍힌 자료도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국왕의 개인 장서인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고찰이 요망된다.

〈표 9〉 조선 국왕의 장서인

				
君章/延礽	齋/弘	物軒/觀	軒/敬	軒/元
『於于集』	『尤庵後集』	『尤庵後集』	『壽齋遺稿』	『金陵集』

국왕의 장서인을 제외하고 집부 도서에 압인된 관인(官印)을 예시하면 보인으로 규장지보(奎章之寶)와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있고, 기관의 인장으로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시강원(侍講院), 사고(史庫), 교서관(校書館) 등이 있다.

2014년도의 경우 총 887건의 문집 가운데 규장각 이문원(摛文院)의 인장이 찍힌 자료는 19건이고 내각(內閣)의 인장이 찍힌 자료가 1건이며, 홍문관(弘文館)의 인장이 찍힌 자료는 33건인데 그중 '홍문관'이 32건이고 '옥당'(玉堂)이 1건이며, 교서관(校書館)의 관인이 찍힌 자료는 2건으로 '운각장'((芸閣藏) 1건, '교서관' 1건이다. 시강원(侍講院)의 인장이 찍힌 자료는 38건인데 '시강원'과 '춘방장'(春坊藏)은 일반적으로 짝을 이루며 찍혀 있다.[55] 사고(史庫)의 관인이 찍힌 자료는 6건으로 '사관장'(史館藏) 4건, '사각장'(史閣藏) 2건이다. 그밖에도 '집옥재'(集玉齋), '희정당'(熙政堂), '상고'(廂庫), '강도내부구장'(江都內府舊藏) 등의 인장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개별 도서에 압인된 관인은 인문 정보에 의거해서 조선시대에 해당

55) 시강원 장서인의 유형에 대해서는 옥영정, 2005「조선시대 왕세자교육기관의 典籍保存과 藏書印의 사용」,『古典籍』, 78-83면 참조.

www.kci.go.kr

도서가 과연 어떤 기관에 소장되어 있었는지를 추적케 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컨대 현재 규장각에는 『육율분운』(陸律分韻)이 11건 소장되어 있다. 『육율분운』은 육유(陸游, 1125-1210)의 율시를 운자별로 분류해 편집한 책으로 정조 명찬서이다. 규장각 소장 『육율분운』 11건 중 6건에 '규장지보'가 찍혀 있는데 6건 중 3건에는 '사관장'(史館藏)이 압인되어 있고, 봉면지에 각각 태백산(太白山), 오대산(五臺山), 정족산성(鼎足山城)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6건 중 나머지 3건에는 '홍문관', '시강원', '내각'의 인장이 각각 압인되어 있다. 그런즉 현재 규장각에 『육율분운』이 다수 소장된 것은, 본래 태백산 사고, 오대산 사고, 정족산 사고, 홍문관, 시강원, 내각에 개별적으로 소장되었던 도서가 추후 합쳐진 결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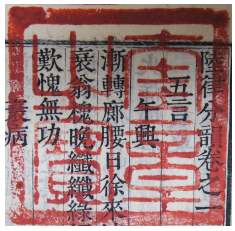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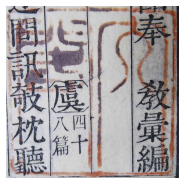
실제로 『일성록』을 보면, 정조는 『두율분운』(杜律分韻)과 『육율분운』을 명간하였고, 간행이 완성되자 1798년 7월 22일에 새로 간행한 두 종의 책을 여러 기관과 신하에게 반사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해당 기사에서 정조는 "『두율분운』과 『육률분운』을 서고(西庫)에 50건, 내각에 3건, 옥당(玉堂)과 춘방(春坊)에 각 2건, 존경각(尊經閣)에 1건, 다섯 곳 사고(史庫)와 외규장각(外奎章閣)에 각 1건씩 사급(賜給)하라"라는 전교를 내리었다.[56] 그러므로 규장각 소장 『육율분운』 11건 중 규장지보가 찍힌 6건은 정조의 반사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관인은 조선시대 각 기관의 장서 규모와 내역, 국왕의 독서 이력, 왕실의 장서 관리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서목(書目)과 더불어 양대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홍문관의 관인이 찍힌 자료와 『홍문관서목』에 수록된 자료를 매칭한다거나 시강원의 관인이 찍힌 자료와 『춘방장서총목』(春坊藏書總目)에 수록된 자료를 매칭함으로써 근대시기 규장각으로 통합되기 이전의 도서 원질서, 개별 기관의 도서 규모, 각 기관의 학술적 성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56) 『일성록』의 해당 기사는 다음을 참조. 『日省錄』 1798年 7月 22日條 "敎曰: '『杜律分韻』、『陸律分韻』, 西庫各五十件, 內閣各三件, 玉堂,春坊各二件, 尊經閣各一件, 五處史庫,外奎章閣各一件"

www.kci.go.kr

〈표 10〉 조선 왕실 기관의 관인(官印)

				
之寶/奎章	史館藏	弘文館	侍講院	閣/內
『杜律分韻』	『杜律分韻』	『杜律分韻』	『杜律分韻』	『杜律分韻』

5. 맺음말

소장 자료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볼 때, 규장각이 전근대 문헌 소장기관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점한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규장각이 도서관, 박물관, 연구원 등 실로 다양한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기실 장서의 막대함과 풍부함에 근원한다. 따라서 소장 자료의 체계적 정리, 즉 목록의 지속적 업데이트는 규장각이 완수해야 할 사회적 책무 가운데 가장 핵심적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목록 사업은 막대한 양의 원전 자료에 대한 정밀한 실사를 요구하므로, 일개 연구자가 도모할 수 있는 학술 사업이 아닐뿐더러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돼 속전속결로 완결하는 일회성 사업도 될 수 없다. 중장기적 시일이 소요되는 목록 사업의 이러한 제약은, 조사 대상 자료의 특성에 맞춘 '연계 사업'을 발굴해 병행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예컨대 중국본 자료 중 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도서에 대한 해제 사업을 구상할 때 중국본 목록 조사를 중심에 놓고 미해제 도서 사업을 연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목록 사업과 해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예산 절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결과의 상호 검수에 의한 오류 수정, 원전 자료의 출납 감소에 의한 보존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규장각의 여러 사업은 목록 사업을 뼈대로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다는 뜻이다.

www.kci.go.kr

이와 같은 시각에서 집부사업은 2013년 출범부터 집부 목록사업의 연계사업으로 '규장각 도서 장서인 자료집'과 '규장각 소장 선본문집총서'의 기획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다. 그 중 집부 목록사업과 장서인 사업의 연계는, 규장각 소장 자료 중 한국본 집부 고도서의 압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자, 장서인 자료집이 한국학 연구자에게 필요한 대표적 공구서(工具書)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지난 반세기 한국학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보(印譜)의 집성은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근역인수』(槿域印藪) 이래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집부사업의 결과로 도서 정보와 장서인 정보가 매칭되는 장서인자료집이 기획·발간됨으로써, 한국학의 견실한 기초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2016. 10. 14), 심사일(2016. 11. 22), 게재확정일(2016. 12. 7)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권　근(權　近), 『양촌선생문집』(陽村先生文集: 一簑古 819.51-G995y)
권두인(權斗寅), 『하당선생문집』(荷塘先生文集: 古 3428-526)
권　용(權　墉), 『선계선생문집』(仙溪先生文集: 古 3428-674)
권호문(權好文), 『송암집』(松巖集: 古 3428-664)
김난상(金鸞祥), 『병산유집』(餠山遺集: 古 819.5-G423b)
김만중(金萬重), 『서포집』(西浦集: 奎 4059)
김상헌(金尙憲), 『청음선생집』(淸陰先生集: 經古 819.53-G425c)
김　육(金　堉), 『잠곡유고』(潛谷遺稿: 奎 1782)
김종후(金鍾厚), 『본암속집』(本庵續集: 奎 15619)
김주신(金柱臣), 『수곡집』(壽谷集: 奎 5580)
김창흡(金昌翕), 『삼연집』(三淵集: 奎 7296)
남공철(南公轍), 『금릉집』(金陵集: 奎 1603, 1604)
_____, 『영옹속고』(潁翁續藁: 奎 1757)
_____, 『영옹재속고』(潁翁再續藁: 奎 3104)
남유용(南有容), 『뇌연시고』(雷淵詩稿: 奎 12241)
문덕교(文德敎), 『동호집』(東湖集: 古 3436-14)
박종복(朴宗復), 『동행록』(同行錄: 一簑古 811.03-D717)
박종훈(朴宗薰), 『공필록』(恐筆錄: 古3440-11)
박종희(朴宗喜), 『만촌고』(晩村稿: 奎 4895)
박치원(朴致遠), 『무술초추사장』(戊戌初秋辭章)
서경보(徐畊輔), 『기백편』(己百編: 奎 6244)
서명응(徐命膺), 『보만재집』(保晩齋集: 一簑古 819.54-Se61b)
송남수(宋枏壽), 『송담집』(松潭集: 古 3428-473)
송시열(宋時烈), 『우암집』(尤菴集: 奎 5729, 古 1360-29)
_____, 『우암후집』(尤庵後集: 奎 4855)
신　완(申　琓), 『경암문고』(絅庵文稿: 古 3428-525)
오　숙(吳　翽), 『천파집』(天坡集: 古 3428-297)
유만주(兪晩柱), 『흠영』(欽英: 古 0320-25)
유몽인(柳夢寅), 『어우집』(於于集: 奎 7496)

www.kci.go.kr

유성룡(柳成龍), 『서애집』(西厓集: 古 3428-15)
유종원(柳宗元), 『당유선생집』(唐柳先生集: 想白古 895.1443-Y92d)
유한준(兪漢雋), 『자저』(自著: 古 3447-15)
_____, 『저암집』(著菴集: 古 3436-9)
유 화(柳 訐), 『배경당시집』(拜經堂詩集: 古 3428-494)
윤 상(尹 祥), 『별동집』(別洞集: 奎 4072)
윤창후(尹昌垕), 『야연만록』(野淵漫錄: 가람古 819.54-Y97y)
이곤수(李崑秀), 『수재유고』(壽齋遺稿: 奎 7648)
이병직(李秉直), 『수약헌유고』(守約軒遺稿: 古 3428-311)
이산해(李山海), 『아계유고』(鵝溪遺稿: 奎 4761)
이수광(李睟光), 『지봉선생집』(芝峯先生集: 一簑古 819.53-Y63jb)
이시발(李時發), 『碧梧遺稿』(奎 15711)
이 식(李 植), 『택당집』(澤堂集: 古 3428-67)
이운영(李運永), 『옥국재유고』(玉局齋遺稿: 奎 7365)
이 익(李 瀷), 『성호선생문집』(星湖先生文集: 古 3428-90)
이인병(李寅炳), 『樊圃遺稿』(奎 15710)
이 재(李 縡), 『도암집』(陶菴集: 經古 819.54-Y58d)
이정귀(李廷龜), 『월사집』(月沙集: 古 3428-30)
이춘영(李春英), 『체소집』(體素集: 古 3428-298)
이해창(李海昌), 『송파집』(松坡集: 奎 6328)
임수간(任守幹), 『둔와유고』(遯窩遺稿: 奎 6990)
정내성(鄭來成), 『사헌문집』(思軒文集: 古 3478-572)
정필규(鄭必奎), 『노암선생문집』(魯庵先生文集: 古 3428-600)
조 익(趙 翼), 『포저집』(浦渚集: 奎 3521)
조임도(趙任道), 『간송선생문집』(澗松先生文集: 奎 11650)
조한복(趙漢復), 『이서시화』(彛敍詩話: 古 3428-497)
최 립(崔 岦), 『간이집』(簡易集: 奎 1679)
한덕사(韓德師), 『석은유고』(石隱遺稿: 古 3428-196)
허득량(許得良), 『상무헌유고』(尙武軒遺稿: 奎 12682)
허 목(許 穆), 『미수기언』(眉叟記言: 古 0270-8)
홍가신(洪可臣), 『만전선생문집』(晩全先生文集: 奎 7164)
홍중성(洪重聖), 『운와집』(芸窩集: 奎 4658)
황 유(黃 紐), 『반간선생문집』(槃澗先生文集: 古 3428-548)
황준량(黃俊良), 『금계선생문집』(錦溪先生文集: 古 3428-522)

www.kci.go.kr

황 현(黃 玹),『매천집』(梅泉集: 가람古 819.6-H991m)

두 보(杜甫),『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 一簑古 895.11-D85ba)
왕 발(王勃),『왕발집』(王勃集: 奎中 4060)
왕안석(王安石),『왕형문공시』(王荊文公詩: 奎中 2254)
육 유(陸游),『육율분운』(陸律分韻: 奎 4230, 5502, 5917, 6737, 6848, 6850, 6903, 7282, 5918, 2895, 3381)
주 희(朱熹),『논어집주』(論語集註: 古貴 1333-11)
한 유(韓愈),『주문공교창려선생집(朱文公校昌黎先生集: 가람古貴 895.19-H19j)
호 광(胡廣) 외,『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古貴 1343-5)
황정견(黃庭堅),『산곡시집주』(山谷詩集註: 古貴 3442-17)

2. 논저

규장각, 1982『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
규장각, 1994『(수정판)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上・下
문화재청, 2009『고서・고문서 조사편람』

권태억 외, 2007『경제문고 해제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상기, 2001「근대의 유교학맥과 민족운동: 김복한의 홍주의병과 파리장서 운동」,『대동문화연구』39
김수진, 2013「조선후기(朝鮮後期) 문집간행(文集刊行)의 추이(推移)와 그 특징(特徵)」,『어문연구』159
김수진・오세현・김하라 외, 2015「규장각 소장 집부(集部) 도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1)」,『규장각』47
김영진, 2010「해암(海巖) 유경종(柳慶種)의 잡록『파적』(破寂) 연구」,『한문학논집』30, 근역한문학회
김영진 외, 2014「정조(正祖)의 장서인(藏書印)-규장각 소장 조선본(朝鮮本)을 중심으로」,『규장각』45
김하라, 2016「심대윤의 자기서사」,『19세기 한 실학자의 발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류탁일, 2000『성호학파의 문집간행 연구』, 부산대학교출판부
_____, 2001「한국(韓國) 옛 '문집'(文集)의 양태(樣態)와 출판과정(出版過程)」,『영남지방출판문화논고』(嶺南地方出版文化論攷), 세종출판사

www.kci.go.kr

문화재청, 2009『고서・고문서 조사편람』
박용만, 2008「완위각의 전적수집과 문화적 의미에 대한 고찰」,『서지학보』32
박철상, 2002「만권루와 이하곤의 장서인」,『문헌과해석』20
_____, 2008「석란실신정예원삼매」(石蘭室新訂藝苑三昧),『고서해제: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평민사
옥영정, 2003「秋史家의 藏書에 관한 一考」,『서지학보』27
_____, 2005「조선시대 왕세자교육기관의 典籍保存과 藏書印의 사용」,『古典籍』1
이민희, 2009「서적중개상 송신용 연구」,『고소설연구』27
_____, 2011「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 연구:『가람일기』에 나타난 고서 수집 및 거래를 중심으로」,『한국학연구』37
이병기, 1976『가람일기』, 신구문화사.
이종묵, 2006『조선의 문화공간』(3), 휴머니스트
임형택, 2015「한국본 집부(集部)의 형성 배경 및 문헌적 가치」,『규장각』46
최 식, 2013「장서가 심의평(沈宜平)의 문예활동과 편저(編著)」,『동방한문학』54

www.kci.go.kr

Abstract

A Survey Result of the Kyujanggak Jip-Bu(集部) collection(2)
- focused on the Analysis of Proprietary Seals -

Kim su-jin · Kim ha-ra · Oh se-hyun · Yu jeong-yeol · Yoo jong-soo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survey of proprietary seals(changsŏin) among Jip-Bu collection in the Kyujunggak Archives, itself a part of the "Survey Project of Jip-Bu tosŏ in the Kyujunggak Archives(hereafter Jip-Bu Project)" carried out since 2013. The basic objective of this overarching project is to survey each of the more than 6,000 document collections in the archives and catalogue them in a manner commensurate to the twenty-first century. The systematic organization and continuous updating of the archival catalogue may be coun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obligations of the Kyujunggak Archives.

However, this cataloguing project requires meticulous, direct inspection of an enormous number of original manuscripts of ancient documents and literary materials. It is neither a project manageable for a single researcher nor is it merely a matter of mobilizing sufficient manpower. Constraints with respect to time, however, may be mitigated by linking together smaller projects concerned with specific kinds of documents within the archives.

The Jip-Bu Project has proceeded accordingly since 2013, focusing on the publication of two volumes, tentatively entitled, Kyujanggak tosŏ changsŏin charyojip(Source-book of Proprietary Seals among Kyujunggak Documents) and Kyujanggak sojang sŏnbonmunjip ch'ongsŏ(Kyujunggak Archive Rare Book Anthology Series), as a part of the effort to catalogue the archives. The linking of the Jip-Bu Project and the proprietary seal project is based on two considerations. First, documents in the Kyujunggak Archives featuring proprietary seals are overwhelmingly Jip-Bu published in Korea. Second, a catalogue of

www.kci.go.kr

documents featuring proprietary seals would provide a much-needed reference book for scholars of Korean Studies.

The introduction to this project featured in this paper reveals the importance of examining proprietary seals. The publication of a source-book of documents featuring proprietary seals as a result of the survey may establish a firm basi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Key words : Survey Project of Jip-Bu tosŏ in the Kyujunggak Archives, Archival catalogue, Proprietary seals, Source-book of Proprietary Seals among Kyujunggak Documents, Kyujunggak Archive Rare Book Anthology Series.

www.kci.go.kr

〈별첨자료 1: 집부도서 조사카드 형식〉

<table>
<tr><td>①조사카드번호</td><td>집</td><td>②조사자성명</td><td></td><td>③조사일시</td><td>2016. .</td></tr>
<tr><td>④규장각도서번호</td><td></td><td>⑤현재목록상書名</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⑥標題事項</td><td>⑥-1 表題</td><td colspan="4"></td></tr>
<tr><td>⑥-2 卷首題</td><td colspan="4"></td></tr>
<tr><td>⑥-3 版心題</td><td colspan="4"></td></tr>
<tr><td>⑦著者名</td><td colspan="5"></td></tr>
<tr><td>⑧形態事項</td><td>⑧-1 卷冊數</td><td></td><td>⑧-2 冊 크기</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⑨版事項</td><td>⑨-1 版種</td><td colspan="4">筆寫本/木板本/活字本/石印本</td></tr>
<tr><td rowspan="5">⑨-2 版式</td><td>匡郭의 種類/크기</td><td colspan="3"></td></tr>
<tr><td>界線의 유무</td><td colspan="3">有界/無界</td></tr>
<tr><td>行字數</td><td colspan="3"></td></tr>
<tr><td>版心의 유무</td><td colspan="3">有/無</td></tr>
<tr><td>魚尾의 種類</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⑩註記事項</td><td>⑩-1 序跋文</td><td colspan="4"></td></tr>
<tr><td>⑩-2 內賜記</td><td colspan="4"></td></tr>
<tr><td>⑩-3 刊寫記</td><td colspan="4"></td></tr>
<tr><td>⑩-4 刊寫年 추정</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⑪保存事項</td><td colspan="2" rowspan="2">⑪-1 현상태</td><td colspan="3">양호/보통/훼손</td></tr>
<tr><td colspan="3">권책누락(有·無)/낙장(有·無)/蟲食(有·無)/오염 및 변색(有·無)</td></tr>
<tr><td colspan="2">⑪-2 결본 권책</td><td colspan="3">총 ()권 ()책 중 제 ()권 ()책 缺</td></tr>
<tr><td colspan="2">⑪-3 결본 소장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⑫所藏事項</td><td colspan="2">⑫-1 동종자료 소장기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⑫-2 관련자료 書名</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⑫-3 관련자료 소장기관</td><td colspan="3"></td></tr>
</table>

www.kci.go.kr

⑬중요본 분류	⑬-1 유일본/희귀본/일반본 분류	유일본/희귀본/일반본
	⑬-2 영인본 유무	無/有(영인본 정보)
	⑬-3 중요본 분류 (영인 우선순위)	중요본(A·B·C) (중요본 아닐 때는 공란)
	⑬-4 중요본 분류 근거	
⑭『규장각도서 한국본종합목록』 수정사항	⑭-1 수정 전	⑭-2 수정 후
⑮심층조사	⑮-1 필요 여부	필요/불필요
	⑮-2 조사자 전공	문학/역사/철학/기타(직접 기입)
	⑮-3 조사자 성명	
⑯장서인		
⑰기타 사진자료	(중요본의 경우 책 앞면 사진/기타 주요 사진)	
⑱비고		

www.kci.go.kr

〈별첨자료 2: 장서인 조사 지침〉

1) 장서인은 사진촬영을 한다. 단, 훼손되어 '印文'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서인 항목에서 서술하지 않고 촬영하지 않는다. 대신 비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2) 전체 사진과 부분 사진을 찍는다.
① 전체 사진: 장서인이 찍혀 있는 책 면 전체에 대한 사진.
자동 초점으로 설정하여 촬영.
② 부분 사진: 해당 장서인에 대한 사진에 대한 사진.
접사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
* 반드시 공용 사진기를 사용하며, 픽셀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
③ 전체 사진과 부분 사진 모두 알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테두리를 자르는 등 편집을 하고 편집한 파일을 원본으로 저장한다. 편집하여 저장할 때 용량을 최대한의 크기(100%)로 설정한다.

3) 장서인 크기 재는 요령
① 方形일 경우: 테두리 밖에서 밖의 길이를 잰다.
② 圓形일 경우: 지름을 잰다.
③ 기타 不定形일 경우: 직사각의 틀을 적용하여 길이와 넓이를 잰다. 장서인의 모양을 비고에서 서술한다.
예) 종 모양의 장서인이 찍혀 있을 경우 가로와 세로 모두 가장 넓은 면에 사각의 틀을 적용하여 크기를 재고 비고에서 장서인의 모양을 설명한다.

4) 사진 파일은 조사카드에 첨부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한다.

5) 사진 파일의 파일명
① 조사카드 번호와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② 조사카드 하나 당 사진이 여러 개일 경우
ㄱ) '도서번호_일련번호'의 형식으로 파일명을 만든다.
ㄴ) 책 전체에 대한 사진의 파일은 일련번호 대신 인장이 찍혀 있는 부분을 적어 준다.
ㄷ) 장서인에 부여된 번호와 파일에 부여된 번호는 같게 한다.
예) '奎 3486'의 서문 첫 장에 장서인 2과가 찍혀 있을 경우, 책 전체에 대한 사진의 파일명은 '奎 3486_서문'이고, 장서인1의 사진 파일명은 '奎 3486_1', 장서인2의 사진 파일명은 '奎 3486_2'이다.

6) 근대 이전의 장서인만 촬영한다. 경성제대, 서울대, 규장각 등의 관인은 촬영하지 않는다.

7) 왕실장서인의 경우, 각 조사자별로 맨 처음 나왔을 때만 촬영하고, 그 이후에 발견될 때에는 기록만 해둔다. 개인 소장 장서인의 경우 모두 촬영한다.

8) 장서인이 2과 이상일 때에는, 책의 '右上 → 右中 → 右下 → 中上 → 中中 → 中下 → 左上 → 左中 → 左下'의 순서로 번호를 부여한다.
예) 책에 2과의 장서인이 각각 책의 상단과 하단에 찍혀 있을 경우, 상단에 있는 것이 '장서인1'이 되고 하단에 있는 것이 '장서인2'가 된다.

9) 조사카드에 사진파일을 첨부하지 않는 대신, 장서인 개수, 인장 크기, 위치, 파일명 등을 기입한다. 세부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www.kci.go.kr

① 장서인이 1과일 경우
장서인이 찍힌 해당 면, 1과, 파일명: 전체 사진의 파일명
장서인 1: 아라비아숫자×아라비아숫자cm, 위치, 파일명: 부분 사진의 파일명

* 장서인이 찍힌 해당 면과 위치에 대한 서술 요령
ⅰ) 책 전체에서 해당 면에 대한 서술: 장서인이 찍힌 해당 면을 서술한다.
예) 서문 첫 장, 서문 끝 장, 본문 첫 장, 본문 끝 장, 목록 첫 장, 목록 끝 장.
ⅱ) 책 표지와 본문(목록, 서문 등을 포함) 사이의 빈 종이는 '내지'로 서술한다.
ⅲ) 내지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굳이 내지의 몇 번째 장인지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내지에 찍힌 장서인의 위치는 일괄적으로 '내지'로 기입한다.
ⅳ) 개별 장서인의 세부적인 위치에 대한 서술: 장서인이 찍힌 해당 면 내에서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해당 면을 '井'形으로 9등분하여 '左上', '左中' '左下', '中上', '中中', '中下', '右上', '右中', '右下' 중 하나로 기입한다. 한자로 기입.
예) 古 3428-653의 본문 첫 장 하단 오른쪽에 장서인 1과가 찍혀 있을 경우.
본문 첫 장, 1과, 파일명: 古 3428-653_본문
장서인 1: 2.4×2.4cm, 右下, 파일명: 古 3428-653_1

② 장서인이 2과 이상일 경우
장서인이 찍힌 해당 면, ○과, 파일명: 전체 사진의 파일명
1) 장서인 1: 아라비아숫자×아라비아숫자cm, 위치, 파일명: 부분 사진의 파일명
2) 장서인 2: 아라비아숫자×아라비아숫자cm, 위치, 파일명: 부분 사진의 파일명
예) 奎 2977의 목록 첫 장에 장서인 2과가 하단 오른쪽에 위아래로 찍혀 있을 경우.
목록 첫 장, 2과, 파일명: 奎 2977_목록
1) 장서인 1: 4.3×3.0cm, 右下, 파일명: 奎 2977_1
2) 장서인 2: 9.4×9.4cm, 右下, 파일명: 奎 2977_2

③ 장서인이 책장의 두 면 이상에 찍혀 있을 경우, 각각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다음과 같 이 기입한다.
1. 장서인이 찍힌 해당 면, ○과, 파일명: 전체 사진의 파일명
1) 장서인 1: 아라비아숫자×아라비아숫자cm, 위치, 파일명: 부분 사진의 파일명
2) 장서인 2: 아라비아숫자×아라비아숫자cm, 위치, 파일명: 부분 사진의 파일명
2. 장서인이 찍힌 해당 면, ○과, 파일명: 전체 사진의 파일명
1) 장서인 3: 아라비아숫자×아라비아숫자cm, 위치, 파일명: 부분 사진의 파일명
2) 장서인 4: 아라비아숫자×아라비아숫자cm, 위치, 파일명: 부분 사진의 파일명
예) 奎 7488의 서문 첫 장에 장서인 3과가 책 오른쪽 상단, 중간, 하단에, 본문 첫 장에 장서인 3과가 책 오른쪽 상단, 중간 하단에 찍혀 있을 경우.
1. 서문 첫 장, 3과, 파일명: 奎 7488_서문
1) 장서인 1: 2.4×2.6cm, 右上, 파일명: 奎 7488_1
2) 장서인 2: 2.4×2.3cm, 右中, 파일명: 奎 7488_2
3) 장서인 3: 2.4×2.3cm, 右下, 파일명: 奎 7488_3
2. 본문 첫 장, 3과, 파일명: 奎 7488_본문
1) 장서인 4: 2.4×2.6cm, 右上, 파일명: 奎 7488_4
2) 장서인 5: 2.4×2.3cm, 右中, 파일명: 奎 7488_5

www.kci.go.kr

3) 장서인 6: 2.4×2.3cm, 右下, 파일명: 奎 7488_6

④ 장서인이 여러 군데에 동일한 양상으로 찍혀 있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한 곳에 대해서만 기술하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기술한다. 앞에서와 다른 인장이 찍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새롭게 기술한다.

예) 古 3428-693의 제1책 목록 첫 장 및 본문 마지막 장, 제2책의 목록 첫 장 및 본문 마지막 장에 동일한 양상으로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경우.

목록 첫 장, 2과, 파일명: 古 3428-693_목록

1) 장서인 1: 3.0×3.1cm, 右下, 파일명: 古 3428-693_1

2) 장서인 2: 3.2×3.2cm, 右下, 파일명: 古 3428-693_2

→ 제1책의 본문 마지막 장, 제2책의 목록 첫 장 및 본문 마지막 장 등에 대한 기술은 하지 않는다.

⑤ 장서인이 판독 가능할 경우 '장서인' 혹은 '장서인 1'의 다음에 판독한 印文의 내용을 괄호 안에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서인(판독한 인문)'의 형식으로 기입한다.

예) 古 3428-693의 제1책 목록에 장서인 2과가 찍혀 있는데, 위에서 첫 번째 도장은 '金溪'로 판독되고, 두 번째 도장은 판독되지 않을 경우.

목록 첫 장, 2과, 파일명: 古 3428-693_목록

1) 장서인 1(金溪): 3.0×3.1cm, 右下, 파일명: 古 3428-693_1

2) 장서인 2: 3.2×3.2cm, 右下, 파일명: 古 3428-693_2

⑥ 인문의 내용 중 일부가 판독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부분에 글자 대신 '○'라고 기입한다. 판독은 했으되 확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글자 옆에 '(?)'라고 기입한다.

예) '天一閣印'이라고 판독되는데, '天'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天(?)一閣印'

첫 두 글자는 '竹蘭'으로 판독되지만, 세 번째 글자는 미상이고 그 다음 글자는 '室'로 판독되는 경우: '竹蘭○室'

⑦ 여러 곳에 동일한 장서인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찍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기본적으로 장서인의 번호와 장서인의 부분 사진의 파일명은 동일한 번호를 유지한다. 중복된 인장의 경우 앞서의 인장으로 서술을 대체하여 크기와 부분 사진 파일명은 생략하고, 위치만 기록한다.

⑧ 여러 책으로 구성된 한 종류의 도서 안에서 한 두 책에만 장서인이 불규칙적으로 찍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 『陶菴先生文集』(經古 819.54-Y58d, 50권 25책)에는 1책의 목록 첫 장에 서로 다른 장서인 2과가 찍혀 있다. 그리고 2책의 목록 첫 장에는 또 다른 장서인 1과가 찍혀 있다. 그리고 3책부터 25책의 목록 첫 장에는 두 번째 장서인 1과가 찍혀 있다. 이 경우 장서인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1. 1책 목록 첫 장, 2과, 파일명: 經古 819.54-Y58d_1책 목록

1) 장서인 1: 1.8×1.8cm, 右下, 파일명: 經古 819.54-Y58d_1

2) 장서인 2: 1.8×1.8cm, 右下, 파일명: 經古 819.54-Y58d_2

2. 2책 목록 첫 장, 1과, 파일명: 經古 819.54-Y58d_2책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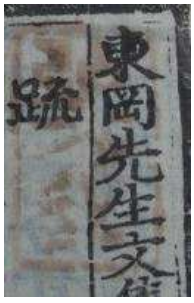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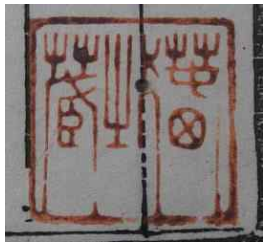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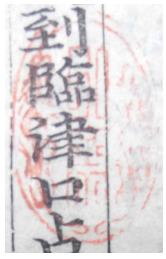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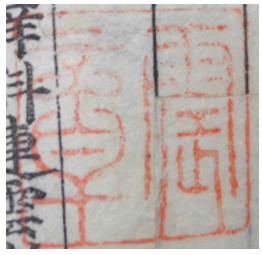
장서인 3: 2.8×2.9cm, 右下, 파일명: 經古 819.54-Y58d_3

3. 3책-25책 목록 첫 장, 1과, 파일명: 經古 819.54-Y58d_3책-25책 목록

장서인 2: 右下

www.kci.go.kr

〈별첨 자료 3: 2014년도 조사 대상 도서 소재 주요 관인(官印)〉

 東岡先生文集 奎 4601_1 2.5×4.2cm, 中上 弘文館	 東岡先生文集 奎 3488_1 3.0×6.0cm, 右上 侍講院	 東岡先生文集 奎 3488_2 3.0×6.0cm, 右上 春坊藏
 東岡先生文集 奎 5620_1 3.5×2.3cm, 右下 弘齋	 東岡先生文集 奎 5620_2 3.4×3.4cm, 右下 震章	 東岡先生文集 奎 5620_3 2.5×4.5cm, 左下 校書館
 東里集 奎 4830_1 2.5×4.2cm, 右上 弘文館	 東里集 奎 7289_1 2.3×3.7cm, 右下 弘齋	 東里集 奎 7289_2 3.5×3.5cm, 右下 震章

www.kci.go.kr

 東國李相國集 奎 4938_1 2.5×4.2cm, 右上 弘文館	 東國李相國集 奎 5270_1 2.5×2.8cm, 右上 春坊藏	 東國李相國集 奎 5270_2 3.0×6.0cm, 右下 侍講院
 梅月堂集 奎 7062_1 5.6×5.6cm, 右下 摛文院	 慕齋先生集 奎 4381_1 4.5×4.5cm, 中上 學部圖書	 慕齋先生集 奎 4381_2 2.9×4.3cm, 右上 弘文館
 慕齋先生集 奎 4381_3 2.1×4.8cm, 右下 編輯局保管	 慕齋先生集 奎 4381_4 2.0×4.6cm, 右下 承華淸賞	 文節公金先生逸稿 奎 3138_1 5.6×5.6cm, 右下 摛文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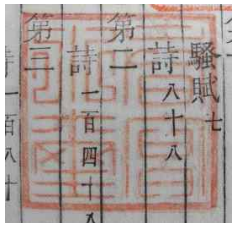
www.kci.go.kr

 慕齋先生集 奎 4381_5 2.5×2.5cm, 右下 弘齋	 文趣 奎中 2195_2 2.8×2.8cm, 右上 世寶	 文趣 奎中 2195_3 2.0×2.0cm, 右下 觀物軒
 文趣 奎中 2195_4 2.1×2.1cm, 右下 貳極之章	 白沙先生集 奎 4235_1 5.6×5.6cm, 右下 摛文院	 白沙先生集 奎 4771_1 4.3×2.8cm, 右上 弘文館
 東谿集 奎 4330_1 5.6×5.6cm, 右下 摛文院	 東谿集 奎 4334_1 4.5×2.0cm, 右下 承華淸賞	 東谿集 奎 4334_2 2.6×2.6cm, 右下 弘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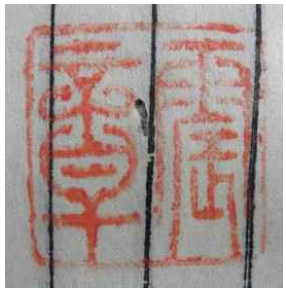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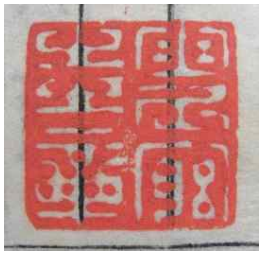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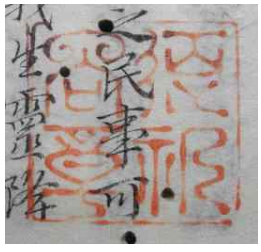
www.kci.go.kr

 栗谷先生文集 奎 5750_1 4.4×2.5cm, 右上 弘文館	 栗谷先生文集 奎 6509_1 5.0×2.4cm, 右下 史館藏	 栗谷先生文集 奎 6703_1 2.7×2.7cm, 右上 春坊藏
 栗谷先生文集 奎 6703_2 5.9×3.0cm, 右上 侍講院	 栗谷先生文集 奎 6703_3 3.0×3.0cm, 右下 春坊藏	 栗谷先生文集 奎 6703_4 4.7×1.7cm, 右下 侍講院
 栗谷先生全書 奎 6798_1 4.4×2.6cm, 右上 弘文館	 栗谷先生全書 奎 2987_1 4.4×2.6cm, 右上 弘文館	 栗谷先生全書 奎 3012_1 4.7×2.3cm, 右上 集玉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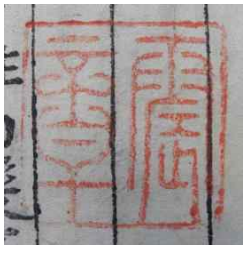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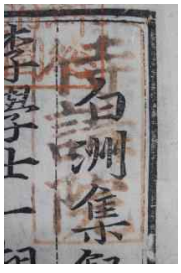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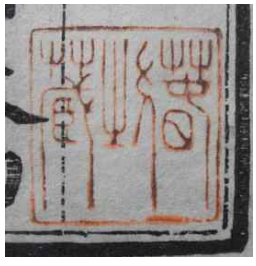
www.kci.go.kr

 栗谷先生全書 奎 3270_1 4.7×2.3cm, 右上 集玉齋	 栗谷先生全書 奎 3793_1 4.7×2.3cm, 右上 集玉齋	 磨鏡軒集 奎 6738_1 5.8×3.0cm, 右上 春坊藏
 磨鏡軒集 奎 6738_2 2.7×2.7cm, 右下 春坊藏	 晩靜堂集 奎 4144_1 6.5×6.5cm, 中上 春宮小璽	 晩靜堂集 奎 4144_2 2.5×2.5cm, 右下 震宮之章
 晩靜堂集 奎 4144_3 2.5×2.5cm, 右下 觀物軒	 明谷集 奎 5058_1 5.9×3.0cm, 右上 侍講院	 白麓遺稿 奎 11605_1 4.9×3.5cm, 右上 弘文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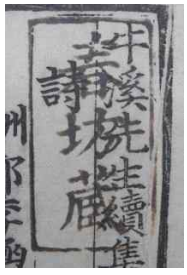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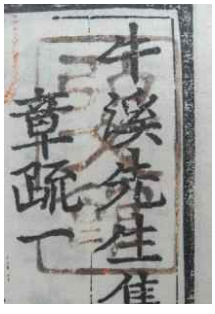
www.kci.go.kr

 明谷集 奎 5058_3 3.6×2.3cm, 右下 弘齋	 明谷集 奎 5058_4 3.5×3.5cm, 右下 震章	 明谷集 奎 5902_1 5.9×3.2cm, 右上 侍講院
 明谷集 奎 5902_2 4.7×1.7cm, 右下 侍講院	 慕夏堂文集 奎 4255_1 5.6cm×5.7cm, 右下 摛文院	 牧谷集 奎 5008_1 3.0×3.0cm, 右下 蓍齋
 牧谷集 奎 5008_2 3.1×3.2cm, 右下 震宮圭章	 戊戌初秋辭章 奎 7817_1 4.0×4.2cm, 右下 延礽君章	 戊戌初秋辭章 奎 7817_2 3.5×3.7cm, 左下 日三省吾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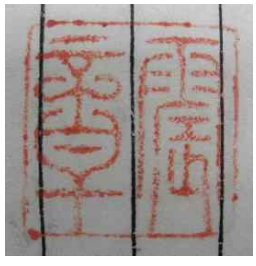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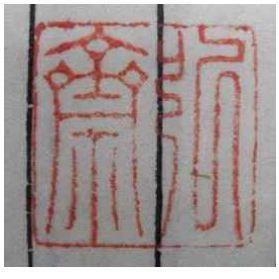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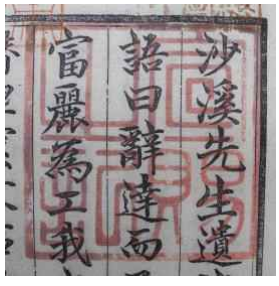
www.kci.go.kr

 松江遺稿 奎 6618_1 5.7×3.0cm, 右上 春坊藏	 松江遺稿 奎 6618_2 5.0×2.5cm, 右下 侍講院	 汾西集 奎 6555_1 4.2×2.9cm, 右上 弘文館
 松江遺稿 奎 6929_2 3.7×2.2cm, 右下 弘齋	 松江遺稿 奎 6929_3 3.5×3.5cm, 右下 震章	 白洲集 奎 7302_1 4.4×2.9cm, 右上 弘文館
 白洲集 奎 7577_1 6.0×3.0cm, 右上 侍講院	 白洲集 奎 7577_2 2.8×2.8cm, 右下 春坊藏	 三峯集 奎 726_1 9.4×9.4cm, 中中 奎章之寶

www.kci.go.kr

 三峯集 奎 2957_1 9.4×9.4cm, 中中 奎章之寶	 三峯集 奎 3081_1 9.4×9.4cm, 中中 奎章之寶	 三峯集 奎 3081_2 4.2×2.7cm, 右下 弘文館
 三峯集 奎 3536_1 9.4×9.4cm, 中中 奎章之寶	 三峯集 奎 4722_1 9.4×9.4cm, 中中 奎章之寶	 牛溪先生續集 奎 4463_1 5.8×3.0cm, 右上 春坊藏
 牛溪先生集 奎 3552_1 4.1×2.4cm, 右上 弘文館	 牛溪先生集 奎 4464_1 4.3×2.8cm, 右上 弘文館	 牛溪先生集 奎 5294_1 4.3×2.8cm, 右上 弘文館

www.kci.go.kr

 牛溪先生集 奎 5294_2 4.5×2.0cm, 右下 承華淸賞	 牛溪先生集 奎 5294_3 2.6×2.6cm, 右下 弘齋	 沙溪先生遺稿 奎 1670_1 8.0×8.0cm, 右上 宣賜之記
 沙溪先生遺稿 奎 1671_1 3.6×2.3cm, 右下 弘齋	 沙溪先生遺稿 奎 1671_2 3.5×3.5cm, 右下 震章	 沙溪先生遺稿 奎 4240_1 8.0×8.0cm, 右上 宣賜之記
 沙溪先生遺稿 奎 4240_2 4.5×2.0cm, 右下 承華淸賞	 沙溪先生遺稿 奎 4240_3 2.6×2.6cm, 右下 弘齋	 沙溪先生遺稿 奎 5378_1 8.0×8.0cm, 右上 宣賜之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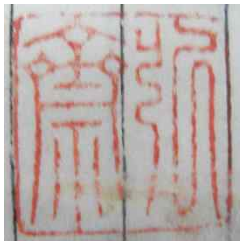
www.kci.go.kr

 沙溪先生遺稿 奎 5378_2 6.0×3.0cm, 右上 侍講院	 陶隱先生詩集 奎 3984_1 4.6×2.2cm, 右下 侍講院	 陶隱先生詩集 奎 3984_2 4.0×2.6cm, 右下 弘齋
 陶隱先生詩集 奎 3984_3 3.6×3.5cm, 右下 震章	 陶隱先生詩集 奎 4266_1 4.3×3.0cm, 右上 弘文館	 陶隱先生詩集 奎 4267_1 5.8×3.0cm, 右上 春坊藏
 陶隱先生詩集 奎 4267_2 4.5×2.1cm, 右下 侍講院	 東省校餘集 奎 5226_1 5.7×5.7cm, 右下 內閣	 東州先生集 奎 6139_1 6.0×3.0cm, 右上 侍講院

www.kci.go.kr

 東州先生集 奎 6139_2 3.0×3.0cm, 右下 春坊藏	 東州先生集 奎 6139_3 3.8×2.5cm, 右下 弘齋	 東州先生集 奎 6139_4 3.6×3.6cm, 右下 震章
 漫浪集 奎 4304_1 4.9×2.6cm, 右上 侍講院	 漫浪集 奎 4304_2 4.5×2.0cm, 右下 承華淸賞	 漫浪集 奎 4304_3 2.7×2.7cm, 右下 弘齋
 漫浪集 奎 4305_1 6.0×3.3cm, 右上 侍講院	 漫浪集 奎 4305_2 3.0×3.1cm, 右下 春坊藏	 鳴皐集 奎 6938_1 4.3×2.9cm, 右上 弘文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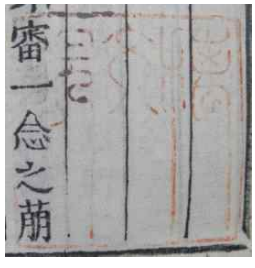
www.kci.go.kr

 牧隱集 奎 4277_1 4.6×2.3cm, 右上 侍講院	 牧隱集 奎 4277_2 6.0×3.3cm, 右下 侍講院	 牧隱集 奎 4276_1 5.7×5.7cm, 右下 摛文院
 牧隱集 奎 4976_1 5.6×5.6cm, 右下 摛文院	 牧隱集 奎 5771_1 4.4×2.9cm, 右上 弘文館	 夢窩集 奎 4426_1 4.5×2.1cm, 右下 承華淸賞
 夢窩集 奎 4426_2 2.6×2.6cm, 右下 弘齋	 保晩齋集 奎 4377_1 3.0×3.0cm, 右下 元軒	 保晩齋集 奎 4376_1 3.0×3.0cm, 右下 元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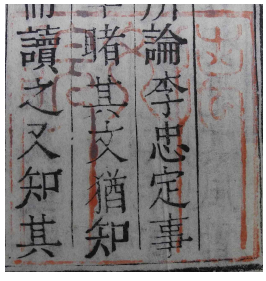
www.kci.go.kr

 渼湖集 奎 4799_1 5.6×5.6cm, 右下 摛文院	 白江先生集 奎 6275_1 4.3×3.0cm, 右上 弘文館	 白江先生集 奎 6276_1 3.1×3.1cm, 右下 耆齋
 白江先生集 奎 6276_2 3.3×3.3cm, 右下 震宮圭章	 白江先生集 奎 4414_1 6.0×3.0cm, 右上 侍講院	 白江先生集 奎 4414_2 3.1×3.1cm, 右下 春坊藏
 白江先生集 奎 4415_1 6.0×3.0cm, 右上 侍講院	 白江先生集 奎 4415_2 3.1×3.1cm, 右下 春坊藏	 白氏文集 奎中 1690_1 4.3×2.9cm, 右上 弘文館

www.kci.go.kr

 樊巖先生集 奎 4133_1 6.0×3.0cm, 右下 侍講院	 樊巖先生集 奎 3134_1 6.0×3.0cm, 右下 侍講院	 保閑齋集 奎 7095_1 6.0×3.0cm, 右上 侍講院
 保閑齋集 奎 7095_2 2.9×2.8cm, 右下 春坊藏	 保閑齋集 奎 7095_3 4.0×2.5cm, 右中 弘齋	 保閑齋集 奎 7095_4 3.6×3.6cm, 右下 震章
 保閑齋集 奎 7325_1 4.3×2.9cm, 右上 弘文館	 鳳巖集 奎 5025_1 5.6×5.6cm, 右下 摛文院	 鳳巖集 奎 5203_1 5.6×5.6cm, 右下 摛文院

www.kci.go.kr

 四雨亭集 奎 6312_1 4.3×3.0cm, 右上 弘文館	 三節遺稿 奎 4821_1 6.0×3.1cm, 右上 侍講院	 三節遺稿 奎 4821_2 2.8×2.9cm, 右下 春坊藏
 三淵集 奎 6722_1 5.8×5.7cm, 中下 摛文院	 三淵集 奎 7296_1 7.0×3.1cm, 右上 熙政堂	 三淵集 奎 7296_2 2.2×1.5cm, 右下 書廚印
 三淵集 奎 7296_3 2.3×2.3cm, 右下 觀文樓淸事	 三淵集 奎 7296_4 2.1×2.2cm, 右下 敬軒	 商谷集 奎 4731_1 5.5×5.5cm, 右下 摛文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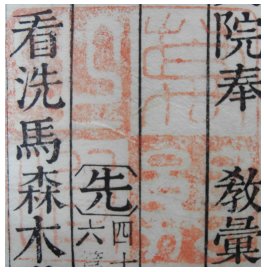
www.kci.go.kr

 西坰集 奎 4588_1 6.0×3.0cm, 右上 侍講院	 西坰集 奎 4588_2 5.1×2.5cm, 右下 侍講院	 陶靖節集 奎중 2307_1 5.7×5.7cm, 右下 摛文院
 東溟先生集 奎 6536_1 6.0×3.4cm, 右上 侍講院	 東溟先生集 奎 6536_2 3.0×3.0cm, 右下 春坊藏	 杜律分韻 奎 7279_1 9.4×9.4cm, 右上 奎章之寶
 杜律分韻 奎 7279_2 6.0×3.0cm, 右下 侍講院	 杜律分韻 奎 5146_1 9.4×9.4cm, 右上 奎章之寶	 杜律分韻 奎 5146_2 4.3×2.9cm, 右下 史館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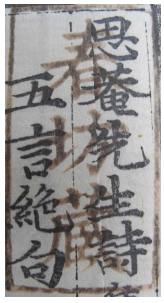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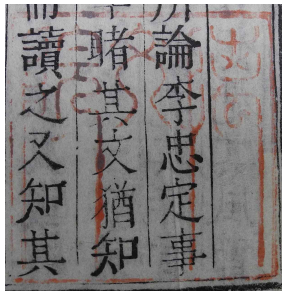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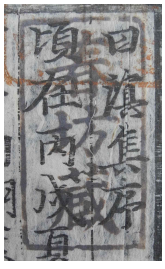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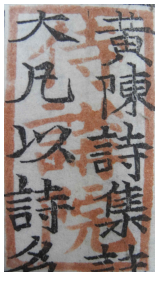
www.kci.go.kr

 杜律分韻 奎 5482_1 9.4×9.4cm, 右上 奎章之寶	 杜律分韻 奎 5482_2 4.3×2.9cm, 右下 史館藏	 杜律分韻 奎 3379_1 9.4×9.4cm, 右上 奎章之寶
 杜律分韻 奎 3380_1 9.4×9.4cm, 右上 奎章之寶	 杜律分韻 奎 6224_1 9.4×9.4cm, 右上 奎章之寶	 杜律分韻 奎 2979_1 9.4×9.4cm, 右上 奎章之寶
 杜律分韻 奎 2979_2 4.3×2.9cm, 右下 史館藏	 杜律分韻 奎 2915_1 4.7×2.4cm, 右上 集玉齋	 杜律分韻 奎 2916_1 4.7×2.4cm, 右上 集玉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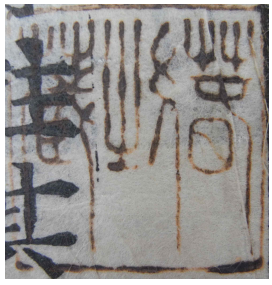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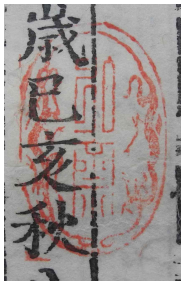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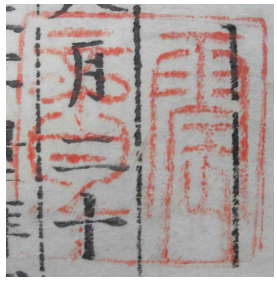
www.kci.go.kr

 杜律分韻 奎 7317_1 4.7×2.4cm, 右上 集玉齋	 杜律分韻 奎 5662_1 5.4×5.4cm, 右中 弘齋	 杜律分韻 奎 5662_2 5.3×5.3cm, 右下 萬機之暇
 白麓遺稿 奎 11605_1 4.9×3.5cm, 右上 弘文館	 蓬萊詩集 奎 5108_1 3.8×2.3cm, 右下 弘齋	 蓬萊詩集 奎 5108_2 3.5×3.5cm, 右下 震章
 思菴先生文集 奎 3414_1 4.5×4.5cm, 右上 學部圖書	 思菴先生文集 奎 3414_2 4.7×2.2cm, 右下 編輯局保管	 思菴先生詩集 奎 1629_1 5.0×2.6cm, 右下 侍講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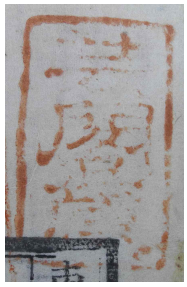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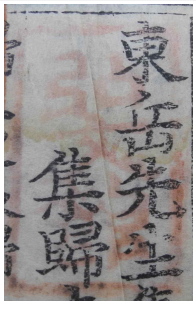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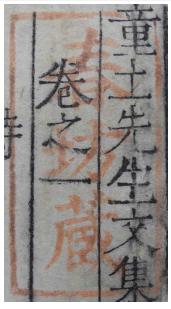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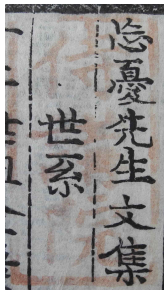
www.kci.go.kr

 思菴先生詩集 奎 1629_2 5.7×3.0cm, 右上 春坊藏	 思菴先生詩集 奎 5053_1 4.4×2.6cm, 右下 弘文館	 商谷集 奎 4731_1 5.5×5.5cm, 右下 摛文院
 沙溪先生遺稿 奎 4941_1 5.5×5.5cm, 右下 摛文院	 沙溪先生遺稿 奎 4942_1 5.5×5.5cm, 右下 摛文院	 四溟堂大師集 奎 6327_1 5.8×3.0cm, 右上 春坊藏
 四溟堂大師集 奎 6327_2 2.8×2.8cm, 右下 春坊藏	 山谷內集詩註 奎中 1707_1 6.0×3.2cm, 右上 侍講院	 山谷內集詩註 奎中 1707_2 2.8×2.8cm, 右下 春坊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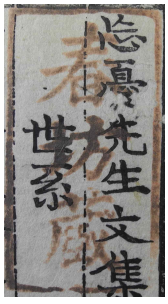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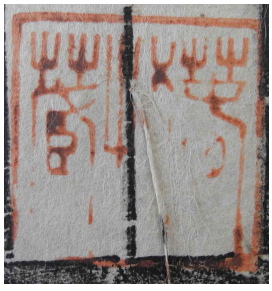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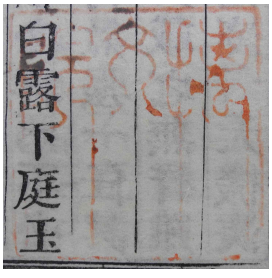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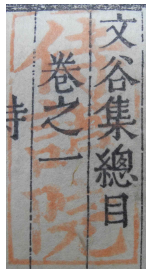
www.kci.go.kr

 山谷內集詩註 奎中 1707_3 3.7×3.3cm, 中上 群玉圖書之府	 山谷外集詩註 奎中 1706_1 6.0×3.2cm, 右上 侍講院	 山谷外集詩註 奎中 1706_2 2.8×2.8cm, 右下 春坊藏
 山谷外集詩註 奎中 1706_3 3.7×3.3cm, 中上 群玉圖書之府	 東岳先生集 奎 5636_1 3.7×2.3㎝, 右下 弘齋	 東岳先生集 奎 5636_2 3.5×3.5㎝, 右下 震章
 東岳先生集 奎 5772_1 5.9×3.0㎝, 右上 侍講院	 東岳先生集 奎 5772_2 2.8×2.8㎝, 右下 春坊藏	 東岳先生集 奎 6716_1 4.3×2.9㎝, 右上 弘文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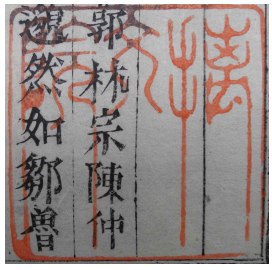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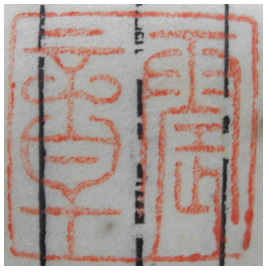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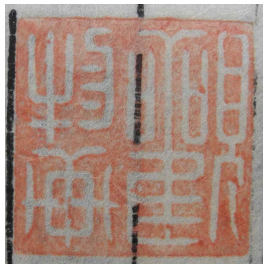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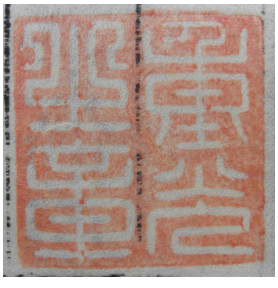
www.kci.go.kr

 東岳先生集 奎 6717_1 4.7×2.9㎝, 右上 芸閣藏	 東岳先生集 奎 6717_2 6.7×2.9㎝, 中中 震章	 東岳先生集 奎 6717_3 2.4×2.4㎝, 右下 著齋
 東岳先生集 奎 6717_4 2.5×2.5㎝, 右下 重光之章	 北渚先生集 奎 5789_1 2.9×4.2cm, 右上 弘文館	 北渚先生集 奎 7091_1 2.9×5.9cm, 右上 侍講院
 東岳先生集 奎 7703_1 4.3×2.7㎝, 右上 弘文館	 童土先生文集 奎 7134_1 5.8×3.1㎝, 右上 春坊藏	 忘憂先生文集 奎 1364_1 6.0×3.2cm, 右上 侍講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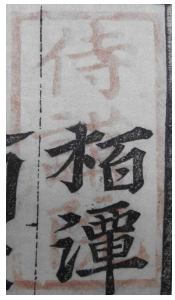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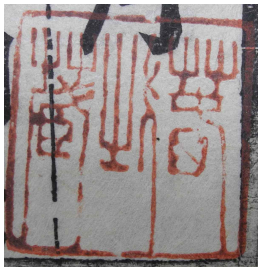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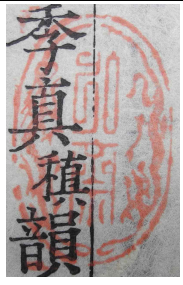
www.kci.go.kr

 忘憂先生文集 奎 1364_2 2.8×2.8cm, 右下 春坊藏	 忘憂先生文集 奎 1364_3 3.7×2.4cm, 右下 弘齋	 忘憂先生文集 奎 1364_4 3.6×3.6cm, 右下 震章
 忘憂先生文集 奎 1455_1 5.8×3.1cm, 右上 春坊藏	 忘憂先生文集 奎 1455_2 2.8×2.8cm, 右下 春坊藏	 明齋先生遺稿 奎 5495_1 4.5×2.8cm, 右上 弘文館
 明齋先生遺稿 奎 4828_1 5.6×5.6cm, 右下 摛文院	 明齋先生遺稿 奎 5820_1 5.6×5.6cm, 右下 摛文院	 文谷集 奎 4075_1 6.0×3.1cm, 右上 侍講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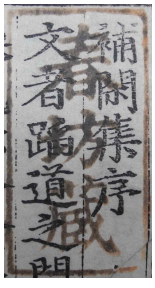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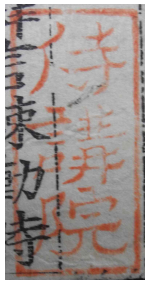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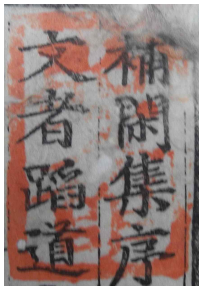
www.kci.go.kr

 文谷集 奎 4075_2 3.4×3.2cm, 右下 春坊藏	 沙村張先生集 奎 4568_1 5.7×5.7cm, 右下 摛文院	 文谷集 奎 4092_2 2.8×2.7cm, 右上 玉堂
 文谷集 奎 5885_1 3.7×2.3cm, 右下 弘齋	 文谷集 奎 5885_2 3.5×3.5cm, 右下 震章	 文谷集 奎 5885_3 2.5×2.5cm, 右下 觀物軒
 文谷集 奎 5885_4 2.5×2.5cm, 右下 重光之章	 文谷集 奎 6629_1 8.0×2.7cm, 右上 史閣藏	 恕菴集 奎 6681_1 4.5×2.8cm, 右上 震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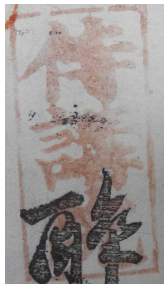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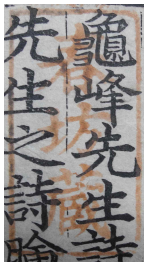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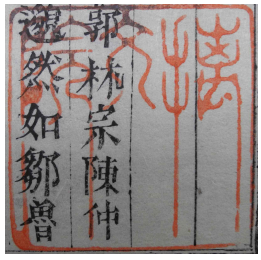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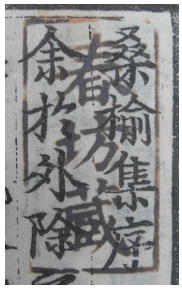
www.kci.go.kr

 怨菴集 奎 6681_2 3.7×2.3cm, 右下 弘齋	 怨菴集 奎 6681_3 3.5×3.5cm, 右下 弘文館	 栢潭先生集 奎 3119_1 6.0×3.3cm, 右下 侍講院
 栢潭先生集 奎 3119_2 3.0×3.0cm, 右下 春坊藏	 栢潭先生集 奎 5271_1 4.9×2.5cm, 右下 侍講院	 栢潭先生集 奎 5271_2 3.0×3.0cm, 右下 春坊藏
 栢潭先生集 奎 6290_1 4.5×2.8cm, 右下 弘文館	 白石遺稿 奎 4073_1 5.7×5.7cm, 右下 摛文院	 泛翁集 奎 6211_1 3.7×2.4cm, 右下 弘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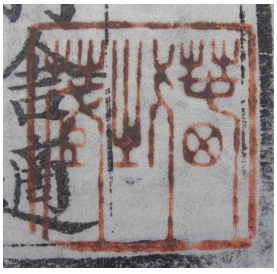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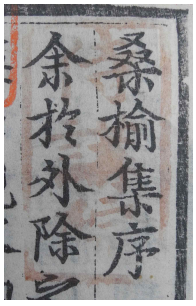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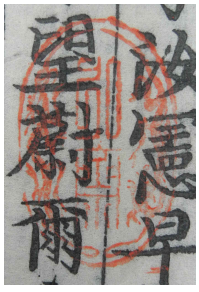
www.kci.go.kr

 泛翁集 奎 6211_2 3.5×3.5cm, 右下 震章	 泛翁集 奎 7051_1 4.4×3.0cm, 右上 弘文館	 泛翁集 奎 6658_1 6.4×2.3cm, 右上 史閣藏
 補閑集 奎 4580_1 5.8×3.1cm, 右上 春坊藏	 補閑集 奎 4580_2 4.5×2.2cm, 右下 侍講院	 補閑集 奎 4707_1 4.3×3.0cm, 右上 弘文館
 北崖詩稿 奎 84_1 4.3×2.9cm, 右上 弘文館	 北崖詩稿 奎 9737의 1_1 5.9×3.0cm, 右上 春坊藏	 北崖詩稿 奎 9737의 1_2 2.8×2.8cm, 右上 春坊藏

www.kci.go.kr

 北崖詩稿 奎 9737의 2_1 2.8×2.8cm, 右上 春坊藏	 北崖詩稿 奎 9737의 2_2 6.0×3.0cm, 右上 侍講院	 北崖詩稿 奎 9737의 2_3 4.7×2.0cm, 右下 侍講院
 批選龜峯先生詩集 奎 4597_1 5.8×3.0cm, 右上 春坊藏	 批選龜峯先生詩集 奎 4597_2 2.8×2.8cm, 右下 春坊藏	 沙村張先生集 奎 4568_1 5.7×5.7cm, 右下 摛文院
 北渚先生集 奎 5789_1 2.9×4.2cm, 右上 弘文館	 北渚先生集 奎 7091_1 2.9×5.9cm, 右上 侍講院	 桑楡集 奎 4633_1 5.8×3.0cm, 右上 春坊藏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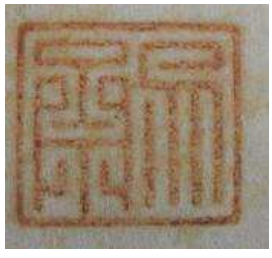
 桑楡集 奎 4633_2 2.8×2.8cm, 右下 春坊藏	 桑楡集 奎 4634_1 6.0×3.3cm, 右上 侍講院	 桑楡集 奎 4634_2 2.8×2.8cm, 右下 春坊藏
 桑楡集 奎 4634_3 3.7×2.3cm, 右下	 桑楡集 奎 4634_4 3.5×3.5cm, 右下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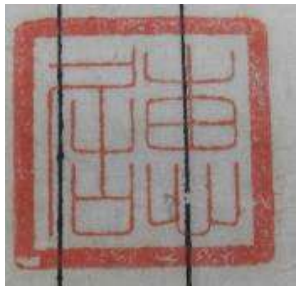
〈별첨 자료 4: 2014년도 조사 대상 도서 소재 주요 사인(私印)〉

 獨石集 奎 488_1 4.6×4.6cm, 右下 日城尉章	 遯溪先生文集 古 3448-552_1 3.1×3.1cm, 右下 金溪	 遯溪先生文集 古 3448-552_2 3.3×3.1cm, 右下 西齋
 遯窩遺稿 奎 6990_1 4.0×4.0cm, 右下 任珖之印	 冬郎集 奎 4536_1 1.5×3.0cm, 右下 完山后人	 冬郎集 奎 4536_2 1.4×2.2cm, 右下 艮雲
 冬郎集 奎 4536_3 1.8×1.8cm, 右下 李建用章	 東國李相國全集 古 3428-834_1 4.5×2.5cm, 右上 蘇湖莊	 三峯集 奎 726_2 3.6×3.6cm, 右下 中東文庫藏書

www.kci.go.kr

 東匡文集 古 3428-645_1 3.0×3.0cm, 右下 金溪	 東匡文集 古 3428-645_2 3.2×3.2cm, 右下 西齋	 同行錄 一簑古 811.03.D717_1 0.9×2.0cm, 右上 石林社
 同行錄 一簑古 811.03.D717_2 1.3×1.9cm, 右下 朴氏宗復圖書記	 同行錄 一簑古 811.03.D717_3 0.7×0.7cm, 左下 希顔	 同行錄 一簑古 811.03.D717_4 0.9×0.9cm, 左下 元華
 東湖先生文集 古 3436-14_1 2.1×2.1cm, 中上 山中人	 杜谷先生文集 古 3428-472_1 1.9×1.9cm, 左上 勿齋	 東湖先生文集 古 3436-14_3 3.6×3.6cm, 右下 柳重序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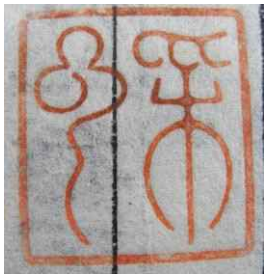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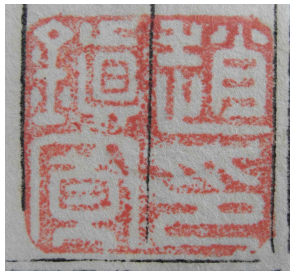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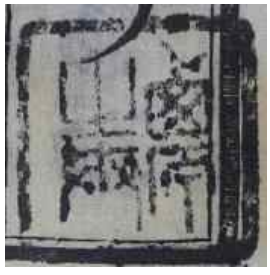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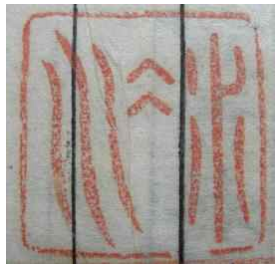
www.kci.go.kr

 東湖先生文集 古 3436-14_4 2.1×2.1cm, 右下 柳慶容印	 尤書集解(文庵先生遺書集解) 古 1360-23_1 2.8×2.8cm, 右中 大老祠都有司	 屯菴集 奎 7149_1 3.8×3.8cm, 右下 安東金履安正禮之印
 慕軒集 古 3428-92_1 3.6×3.5cm, 右下 姜世綸印	 慕軒集 奎 5686_1 5.0×4.8cm, 右下 蔡東益謙受印	 梅月堂詩四遊錄 一簑古 811.03-G425m_3 3.5×3.5cm, 右下 惠居
 梅月堂詩四遊錄 一簑古 811.03-G425m_4 3.5×3.5cm, 右下 金性均印	 梅月堂詩四遊錄 古 3447-95_1 3.1×3.1cm, 右下 尹堉之印	 梅月堂集 奎 7062_2 2.2×2.2cm, 右下 默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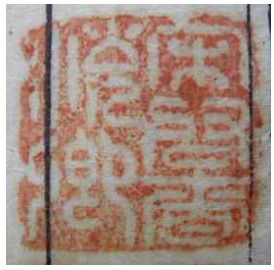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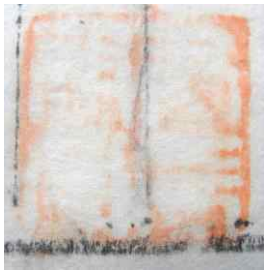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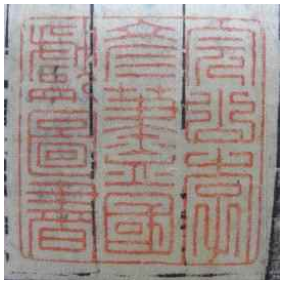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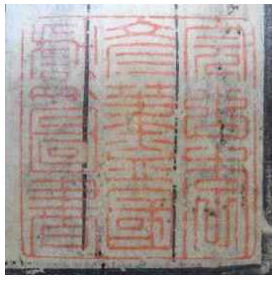
www.kci.go.kr

 梅月堂集 奎 7062_3 2.4×2.4cm, 右下 洪大師後孫	 梅月堂集 奎 7062_4 2.7×2.7cm, 右下 善養士浩	 慕堂集 古 3428-650_1 1.7×1.7cm, 右下 鄭致默信
 茅廬先生文集 奎 5180_1 1.4×1.4cm, 右下 屛只	 茅廬先生文集 奎 5180_2 2.2×2.2cm, 右下 尹喆普印	 无悶堂文集 古 3428-640_1 3.0×3.0cm, 右下 金溪
 无悶堂文集 古 3428-640_2 3.1×3.1cm, 右下 西齋	 拜經堂詩文稿 古 3428-494_1 2.3×2.3cm, 右下 藿園	 泊宅編 一簽古 952.02-B224b_1 2.7×2.7cm, 右下 篤生

www.kci.go.kr

 晩德唱酬錄 奎 6233_6 2.7×2.4cm, 右下 采雲	 晩悔集 奎 6945_1 2.4×2.2cm, 右下 豊山	 屛山集 奎 6202_1 2.6×2.7cm, 右下 趙鎭寬印
 槃澗先生文集 古 3428-548_1 3.5×3.5cm, 右上 鄭光源印	 槃澗先生文集 古 3428-548_2 3.5×3.5cm, 右下 西原之世	 白沙先生集 奎 3559_1 4.0×4.0cm, 右下 李時顯
 栢庵集 古 3428-622_1 3.0×3.0cm, 右上 高橋亨印	 道山遺稿 古 3428-216_1 3.7×3.9cm, 左下 坡平尹勉敎章	 陶菴先生文集 古 3428-27_1 3.3×3.3cm, 右下 氷川

www.kci.go.kr

 陶菴先生文集 古 3428-27_2 4.1×4.1cm, 右下 朴壽煥德汝印	 陶菴先生文集 經古 819.54-Y58d_1 1.8×1.8cm, 右下 宋啓栢悅卿	 陶菴先生文集 經古 819.54-Y58d_2 1.8×1.8cm, 右下 訥窩
 陶菴先生文集 經古 819.54-Y58d_3 2.8×2.9cm, 右下 宋守淵藏	 東皐先生遺稿 古 3428-151_1 2.7×2.7cm, 右下 尹蘭榮印	 栗谷先生文集 古 819.52-Y57y_1 4.5×4.5cm, 右下 完山李彦藎國獻圖書
 栗谷先生詩集 古 811.52-Y57ys_1 4.5×4.5cm, 右下 完山李彦藎國獻圖書	 栗谷先生別集 古 811.52-Y57yb_1 4.5×4.5cm, 右下 完山李彦藎國獻圖書	 栗谷先生全書 奎 5516_1 3.6×3.6cm, 右下 金佐鉉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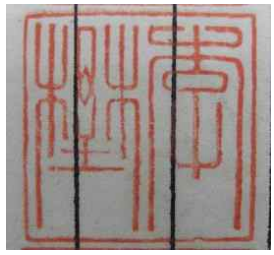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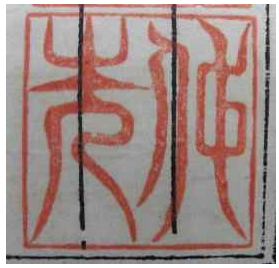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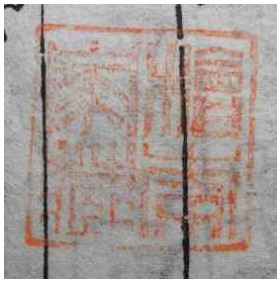
www.kci.go.kr

 晩求先生文集 古 3428-320_1 1.8×2.3cm, 右上 虎	 晩求先生文集 古 3428-320_2 3.0×1.1cm, 右中 蒼虎軒	 晩全先生文集 奎 7164_1 2.6×2.6cm, 右上 橡軒藏書
 晩全先生文集 奎 7164_2 2.5×2.5cm, 右下 安鼎福印	 晩洲遺集 一簑古 819.52-H758m_1 3.3×3.2cm, 右下 光山金氏在成	 梅窓先生文集 古 3428-544_1 3.4×3.3cm, 右下 召福山人
 梅窓先生文集 古 3428-544_2 3.6×3.6cm, 右下 溪堂	 梅泉集 가람古 819.6-H991m_1 3.6×3.6cm, 右下 老而炳煌	 梅泉集 가람古 819.6-H991m_2 2.9×3.6cm, 右上 梅華屋珍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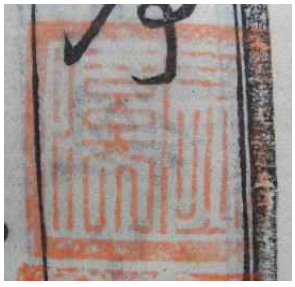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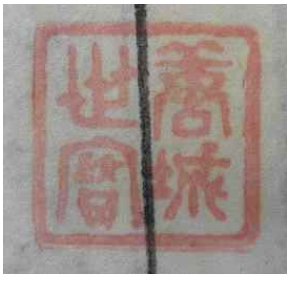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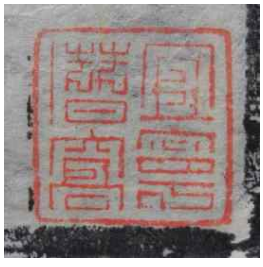
www.kci.go.kr

 梅泉集 가람古 819.6-H991m_3 3.2×3.2cm, 右下 永嘉	 梅泉集 가람古 819.6-H991m_4 3.2×3.2cm, 右下 元五	 梅泉集 가람古 819.6-H991m_5 3.5×3.5cm, 右下 金福漢印
 梅泉集 가람古 819.6-H991m_6 2.9×2.9cm, 左下 志山	 梅泉集 가람古 819.6-H991m_7 3.6×3.6cm, 左下 松友鹿群	 梅軒先生集 古 3428-366_1 2.8×2.3cm, 右下 宣城
 梅軒先生集 古 3428-366_2 2.5×2.5cm, 右下 金履萬印	 梅軒先生集 古 3428-366_3 2.6×2.6cm, 右下 仲綏	 梅軒先生集 古 3428-366_4 2.7×2.7cm, 右下 東厓

www.kci.go.kr

 沙溪先生遺稿 奎 1670_2 3.2×3.2cm, 右下 完山	 沙溪先生遺稿 奎 1670_3 3.4×3.4cm, 右下 李壎	 沙溪先生遺稿 奎 1670_4 3.6×3.6cm, 右下 仲先
 牧谷集 奎 5008_3 3.3×3.3cm, 中下 金基大印	 牧谷集 奎 5008_4 3.4×3.4cm, 中下 伯豊	 牧谷集 古 3428-99_1 4.3×4.3cm, 右下 德水人李周璉宗器印
 松江先生文集 古 3428-75_1 1.3×0.8cm, 右下 奇希文	 下廬先生文集 古 3428-137_1 2.4×2.4cm, 右下 檜南家藏	 下廬先生文集 古 3428-137_2 2.8×2.8cm, 右下 盧家藏

www.kci.go.kr

 方潭集 古 3428-543_1 3.0×3.0cm, 右下 金溪	 方潭集 古 3428-543_2 3.2×3.2cm, 右下 西齋	 栢巖先生文集 一簑古 819.52-G423b_1 4.4×4.4cm, 右上 碧愚家藏
 松江遺稿 古 3428-836_2 2.2×2.2cm, 右下 唐城世寶	 松江遺稿 古 3428-836_3 3.2×3.1cm, 右下 洪直弼印	 松江遺稿 古 3428-836_4 4.2×4.2cm, 右下 伯應
 松江遺稿 古 3428-57_1 1.9×1.9cm, 右下 宜寧潛窩	 白軒先生集 奎 15560_1 3.6×3.6cm, 右下 眞卿	 白軒先生集 奎 15560_2 4.1×4.1cm, 右下 希顔父

www.kci.go.kr

 陶窩先生文集 古 3428-334_1 3.2×2.5cm, 右下 秋崗	 陶窩先生文集 古 3428-334A_1 3.0×3.2cm, 右下 金溪	 陶窩先生文集 古 3428-334A_2 3.2×3.3cm, 右下 西齋
 陶菴遺蹟 一簑古 819.522-D651_1 3.7×3.8cm, 右上 毋不敬	 陶菴遺蹟 一簑古 819.522-D651_2 3.8×3.8cm, 右上 寒泉淵源	 陶菴遺蹟 一簑古 819.522-D651_3 3.0×3.1cm, 右上 鷄林人金樂聖叔睿印
 陶菴遺蹟 一簑古 819.522-D651_4 1.4×1.4cm, 左上 金樂聖印	 陶菴遺蹟 一簑古 819.522-D651_5 3.1×3.1cm, 左上 文獻足徵	 陶菴遺蹟 一簑古 819.522-D651_6 3.8×3.9cm, 左上 陶翁之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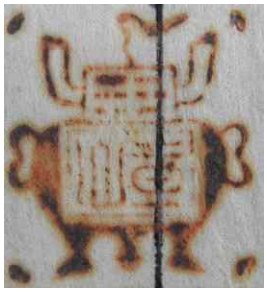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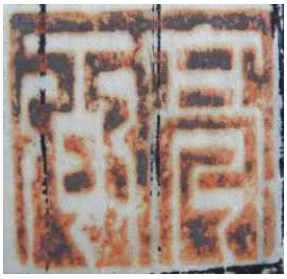
www.kci.go.kr

 海東樂府 가람古 811.05-Y51h_1 3.0×3.7cm, 右下 梅華屋珍玩	 海東樂府 가람古 811.05-D181h_1 3.0×3.7cm, 右下 梅華屋珍玩	 杜工部文集 古貴 895.1143-D85d_1 3.6×1.8cm, 右下 玉
 晩德唱酬錄 奎 6233_2 1.1×0.8cm, 右上 采雲	 晩德唱酬錄 奎 6233_3 2.8×2.5cm, 右下 景實氏	 晩德唱酬錄 奎 6233_4 1.1×1.1cm, 右下 宋秉鼎印
 杜工部詩范德機批選 想白古 895.1143-D85d_1 2.7×2.6cm, 右下 震旦學會	 杜工部詩范德機批選 想白古 895.1143-D85d_2 2.4×2.4cm, 右下 劇中有此閑	 杜工部草堂詩箋 古 3442-13_1 2.8×2.5cm, 右下 眞城李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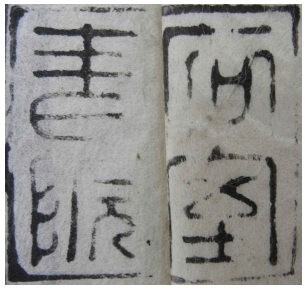
www.kci.go.kr

 杜工部草堂詩箋 古 3442-13_2 2.8×2.5cm, 右下 長亨嘉會	 杜工部草堂詩箋 古 3442-13_3 2.0×2.0cm, 左下 仲鈞	 杜工部草堂詩箋 古 3442-13_4 2.4×2.4cm, 左下 太古逸民
 杜工部草堂詩箋 想白貴 895.1143-D85d_1 3.5×1.0cm, 右下 想白書屋	 杜工部草堂詩箋 想白貴 895.1143-D85d_2 2.8×1.5cm, 左下 末松圖書	 杜工部草堂詩箋 想白貴 895.1143-D85d_3 2.5×2.5cm, 左下 劇中有此閑
 杜工部草堂詩箋 想白古貴 895.104-C346dm_1 3.0×3,0cm, 中上 想白文庫	 俛仰集 가람古 819.52-So58m_1 1.0×1.0cm, 右下 宋在慶章	 晩德唱酬錄 奎 6233_1 6.2×3.5cm, 左上 宋氏山樓藏書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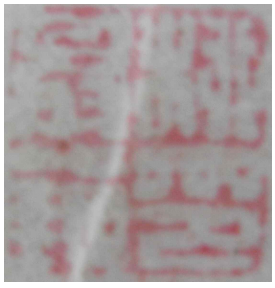
www.kci.go.kr

 晩悔集僭疑(晩悔集) 奎 6946_1 2.4×2.2cm, 右下 豊山	 晩悔集僭疑(晩悔集) 奎 6946_3 3.3×3.4cm, 右下 亮弼	 晩悔集 奎 6945_3 3.3×3.4cm, 右下 亮弼
 牧隱詩藁 一簑古 819.4-Y63m_1 4.6×5.0cm, 左下 迎日鄭氏家藏	 牧隱詩藁 古 3428-871_1 3.2×2.8cm, 右下 冶城後人宋綸	 牧隱詩精選 古 3447-21_1 2.8×2.8cm, 右上 萬卷樓藏
 牧隱詩精選 古 3447-21_3 2.7×2.5cm, 右下 月城後人李時發養久	 密菴先生文集 古 3428-545_1 3.5×3.5cm, 右下 召福山人	 密菴先生文集 古 3428-545_2 3.6×3.8cm, 右下 溪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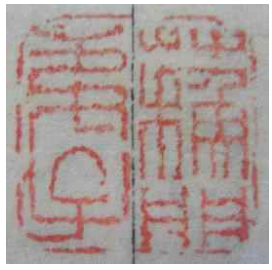
www.kci.go.kr

 山谷內集詩註 奎中 1688_1 9.5×3.9cm, 右上 石室書院	 山谷內集詩註 奎中 1688_2 2.7×2.7cm, 右下 石室書院	 尙武軒遺稿 奎 12682_1 2.0×2.0cm, 右下 仙雲
 夢窩集 奎 4426_3 3.4×3.4cm, 中中 金時默印	 夢窩集 奎 4426_4 3.4×3.4cm, 中下 而愼	 夢窩集 一簑古 819.53-G415m_1 2.3×2.3cm, 右中 三州
 夢窩集 一簑古 819.53-G415m_2 2.7×2.8cm, 右下 李(土+敬)	 夢窩集 一簑古 819.53-G415m_3 4.1×4.0cm, 右下 直夫	 泊翁詩鈔 古 3447-7_1 6.1×6.1cm, 右下 趙命熙印

www.kci.go.kr

 樊川外集 想白古 895.1143-D85bm_2 3.5×1.0cm, 右下 想白書屋	 病唫詩艸 古 3447-18_1 1.3×1.3cm, 右中 梅叟	 病唫詩艸 古 3447-18_2 1.3×1.3cm, 右下 柳最鎭印
 病唫詩艸 古 3447-18_3 1.5×1.5cm, 右上 病樵詩印	 香半館藏書 古 3431-6_1 2.0×2.2cm, 右下 完山人	 香半館藏書 古 3431-6_2 2.7×2.7cm, 右下 李道振印
 病唫詩艸 古 3447-18_4 1.6×1.6cm, 右中 柳最鎭印	 白氏文集 想白古 895.1143-B146b_1 2.6×2.5cm, 右中 江陵	 白氏文集 想白古 895.1143-B146b_2 3.0×3.1cm, 右下 崔海朝印

www.kci.go.kr

 白氏文集 想白古 895.1143-B146b_3 3.1×3.1cm, 右下 大受	 白氏文集 想白古 895.1143-B146b_4 3.2×3.3cm, 右下 然翁	 白氏文集 一簑古 895.11-B146b_1 5.0×5.0cm, 右下 吳氏家藏
 三淵集 奎 6722_2 2.6×2.6cm, 左下 二吾堂印	 白華子集抄 奎 6301_1 2.1×2.2cm, 右上 吉祥如意	 白華子集抄 奎 6301_2 2.1×2.1cm, 右中 蘇門弟子
 白華子集抄 奎 6301_3 3.5×2.2cm, 左下 斯是陋室惟吾德馨	 鳳洲先生文集 古 3428-577_1 3.1×3.1cm, 右下 金溪	 鳳洲先生文集 古 3428-577_2 3.2×3.2cm, 右下 西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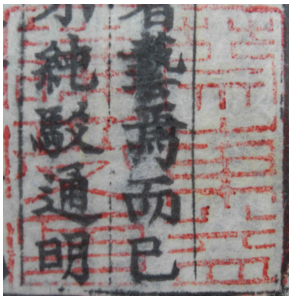
www.kci.go.kr

 鳳村集 奎 5325_1 3.3×3.2cm, 右下 潘南世家	 鳳村集 奎 5325_1 4.0×4.0cm, 左下 潘南朴師益字謙之印	 負暄堂先生文集 古 3428-594_1 1.2×0.9cm, 右下 金炳杰
 參巖先生遺集 古 3428-192_1 2.8×2.8cm, 右下 兪致誠印	 參巖先生遺集 古 3428-192_2 3.1×3.1cm, 右下 兪晩範 麗祥亨	 參巖先生遺集 古 3428-192_3 3.2×3.1cm, 右下 焚香精坐
 陶靖節集 古複 3421-6_1 3.0×3.0cm, 右上 無可軒藏	 同春先生別集 古 3428-878_1 3.0×3.0cm, 右上 無可軒藏	 同春堂先生文集 奎 4132_1 1.9×1.9cm, 右下 明庵

www.kci.go.kr

 陶靖節集 古複 3421-6_2 4.5×4.5cm, 右下 李應白印	 陶靖節集 古複 3421-6_3 2.7×2.7cm, 右上 洗心齋	 陶靖節集 古複 3421-6_4 2.7×2.7cm, 右中 悳水人
 陶靖節集 古複 3421-6_5 3.0×3.0cm, 右下 李應白章	 陶靖節集 古複 3421-6_6 3.3×3.3cm, 右下 庚伯氏	 陶靖節集 古複 3421-6_7 4.6×4.6cm, 左下 梅鶴主人
 分類杜工部詩 想白古 895.1143-D85b2_1 2.9×2.9cm, 中上 想白文庫	 讀杜詩愚得 古貴 895.1143-D195d_1 4.0×3.9cm, 右上 眞寶李氏家藏	 東溟先生集 古 3447-5_1 3.0×2.7cm, 右下 東陽世家

www.kci.go.kr

 木齋先生文集 奎 6281_1 4.7×4.7cm, 右下 蔡東益謙受印	 夢觀詩稿 古 811.03-Y58m_1 1.5×0.4cm, 右下 湖隱	 夢觀詩稿 古 811.03-Y58m_2 1.8×1.8cm, 右下
 同春先生別集 古 3428-878_2 4.4×4.4cm, 右下 李應白印	 同春先生別集 古 3428-878_3 2.7×2.7cm, 右下 悳水人	 同春先生別集 古 3428-878_4 2.9×2.9cm, 右下 李應白章
 同春先生別集 古 3428-878_5 3.2×3.2cm, 右下 庚伯氏	 同春先生別集 古 3428-878_6 2.6×2.7cm, 左上 洗心齋	 同春先生別集 古 3428-878_7 4.0×4.0cm, 左下 洛浦散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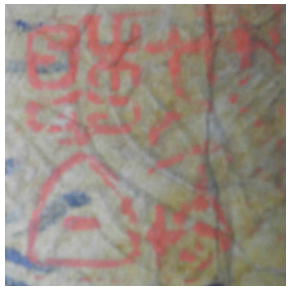
www.kci.go.kr

 方壺先生文集 古 3428-553_1 3.1×3.1cm, 右下 金溪	 方壺先生文集 古 3428-553_2 3.2×3.2cm, 右下 西齋	 方壺先生文集 古複 3428-553_1 4.9×4.3cm, 右下 鄭致默信
 分類杜工部詩 想白古 895.1143-D85b2_4 2.6×2.6cm, 右下 震檀學會	 分類杜工部詩 一簑古 895.11-D85bg_1 2.3×2.3cm, 右下 宜寧南氏	 分類杜工部詩 一簑古 895.11-D85bg_2 2.9×2.9cm, 右下 昌祖孝叔
 分類杜工部詩 가람古 895.11-D85bKyg_1 3.6×3.6cm, 左下 恩津宋耆英	 分類杜工部詩 古貴 895.11-D85b_1 3.6×3.4cm, 右下 閉戶著書	 分類杜工部詩 想白古 895.1143-D85b2_3 4.0×2.5cm, 右下 仁川後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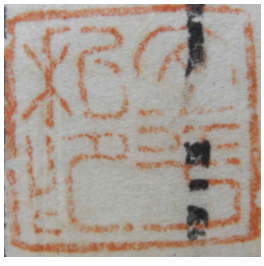
www.kci.go.kr

 分類杜工部詩[諺解] 가람古貴 895.11-D85yKy_1 3.0×3.6cm, 右上 梅華屋珍玩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b v.4-5_1 2.5×2.5cm, 右下 方鍾鉉藏書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b v.15_1 3.6×3.3cm, 左下 恩津宋耆英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b(v.16)_1 2.2×2.2cm, 右下 東陽世家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b(v.16)_2 2.3×2.3cm, 右下 申翊聖章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b(v.16)_3 1.8×1.8cm, 右下 方鍾鉉印
 分類杜工部詩[諺解] 古 3442-3_1 3.0×3.6cm, 右上 全州李氏傳家之印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_1 3.7×3.4cm, 右下 延興世家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 v.4-5_1 3.6×3.3cm, 左下 恩津宋耆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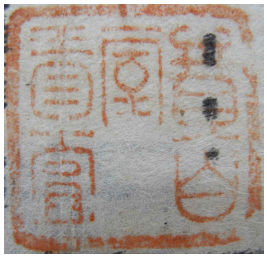
www.kci.go.kr

 樊川文集 古 895.1143-D85b_2 1.2×0.9cm, 右下 원용	 樊川外集 想白古 895.1143-D85bm_1 3.1×3.1cm, 中上 想白文庫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b v.13-14_1 3.0×3.0cm, 右上 方鍾鉉章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b v.13-14_2 3.0×3.0cm, 右下 宜寧後學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b-v.24_1 3.0×3.0cm, 右上 方鍾鉉章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c v.20-22_1 3.3×2.4cm, 右上 靑氈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c v.20-22_2 2.9×2.9cm, 右中 安東權氏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c v.20-22_3 3.1×3.1cm, 右下 義衡	 分類杜工部詩[諺解] 一簑古 895.11-D85bc v.20-22_4 3.2×3.2cm, 右下 君方

www.kci.go.kr

 夢觀詩稿 古 811.03-Y58m_3 1.8×1.8cm, 右下 金星權信	 默庵集 古 3428-613_1 2.5×2.5cm, 右上 高橋亨印	 勿巖先生文集 古 3428-530_1 3.4×3.4cm, 右下 召福山人
 勿巖先生文集 古 3428-530_2 2.8×2.8cm, 右下 坦窩居士	 眉叟記言 古 0270-8_1 2.3×2.3cm, 右下 豹翁	 眉叟記言 古 0270-8_2 2.2×2.2cm, 右下 光之
 眉叟記言 古 0270-8_3 2.1×2.1cm, 右下 賁白室	 眉叟記言 古 0270-8_4 2.1×2.1cm, 右下 宜平私印	 眉叟記言 古 0270-8_5 2.4×2.4cm, 右下 沈氏淵古堂印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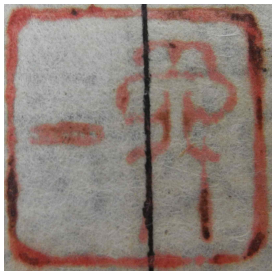
www.kci.go.kr

 眉叟記言 古 0270-8_6 2.1×2.1cm, 右下 賁白室淸賞	 眉叟記言 古 0270-8_7 3.0×3.0cm, 左下 李應寅印	 霜月大師詩集 古 3447-80_1 3.7×3.7cm, 右下 霜月門人
 分類補註李太白詩 가람古貴 895.11-Y64b_2 3.0×1.5cm, 右下 松石	 分類補註李太白詩 가람古貴 895.11-Y64b_3 3.7×3.7cm, 右下 光城後學	 分類補註李太白詩 가람古貴 895.11-Y64b_4 3.7×3.7cm, 右下 金圻止叔
 負暄堂先生遺稿 奎 15607_3 2.9×2.8cm, 右下 光山	 批選龜峯先生詩集 想白古 811.52-So58b_1 3.3×3.3cm, 右下 星山李家所藏	 塞白 古 3428-804_1 2.2×2.2cm, 右上 華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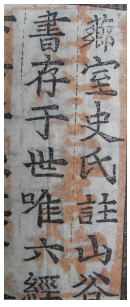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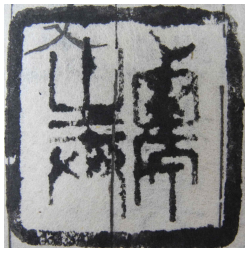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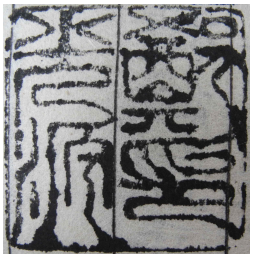
www.kci.go.kr

 分類補註李太白詩 一簑古 895.11-Y64b_1 3.3×2.3cm, 右下 臥雲	 分類補註李太白詩 一簑古 895.11-Y64b_2 4.0×3.0cm, 右下 宣城後人	 分類補註李太白詩 一簑古 895.11-Y64b_3 3.3×3.3cm, 右下 金澤龍施普章
 汾西集 奎 6558_1 3.3×3.3cm, 右下 潘南世家	 汾西集 奎 6558_2 3.9×3.9cm, 左下 潘南朴師益字謙之印	 四友堂先生集 經古 819.53-So58_1 2.1×2.7cm, 中中 朝鮮經濟文庫
 文谷集 古 3428-306_1 2.7×2.7cm, 右下 完山世家	 文谷集 古 3428-306_2 3.4×3.2cm, 右下 李奎禮印	 文谷集 古 3428-306_3 3.1×3.3cm, 右下 龍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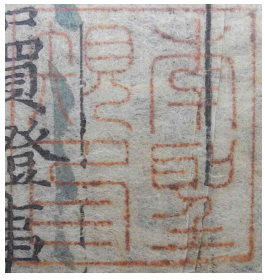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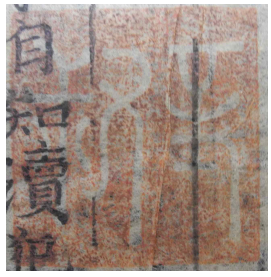
www.kci.go.kr

 思菴先生文集 奎 1630_1 2.2×2.2cm, 右下 冕一	 思菴先生文集 奎 1630_2 3.0×3.1cm, 右下 黃章淵印	 思菴先生文集 奎 1630_3 1.9×1.9cm, 左下 江夏
 山谷詩集註 古 3442-5_1 8.2×8.2cm, 右上 宣賜之記	 山谷詩集註 古複 3442-5_1 2.1×2.1cm, 右下 箕城世家	 山谷詩集註 古複 3442-5_2 2.2×2.2cm, 右下 趙景禛印
 山谷詩集註 古貴 3442-17_1 3.0×3.0cm, 右下 安東世家	 山谷詩集註 古貴 3442-17_2 3.3×3.3cm, 右下 金光炫印	 山谷詩集註 古貴 3442-17_3 3.5×3.5cm, 右下 晦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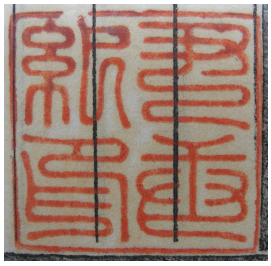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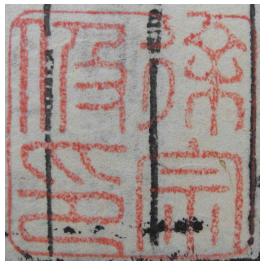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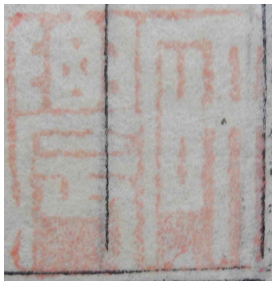
www.kci.go.kr

 於于集 奎 4727_1 4.6×4.1cm, 右下 繡山	 山谷外集詩註 奎中 1734_1 9.5×3.9cm, 右上 石室書院	 山谷外集詩註 奎中 1734_2 2.7×2.7cm, 右下 石室書院
 山谷外集詩註 想白古 895.115-H991s_1 4.7×4.7cm, 右下 趙昌衍印	 山谷外集詩註 想白古 895.115-H991s_3 2.4×2.2cm, 左下 劇中有此閑	 夢悟齋集 奎 7059_1 4.5×4.5cm, 右下 坡山人尹在基敬叟印
 思軒文集 古 3478-572_1 3.6×3.6cm, 右中 西原之世	 思軒文集 古 3478-572_2 3.6×3.6cm, 右下 鄭光源印	 東坡文粹 古 3432-3_1 2.9×2.9cm, 右中 无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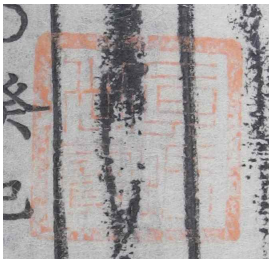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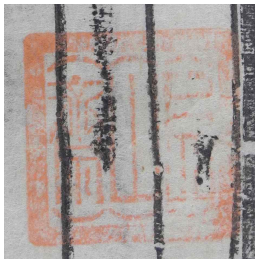
www.kci.go.kr

 東坡文粹 古 3432-3_2 2.6×2.6cm, 右下 完山	 東坡文粹 古 3432-3_3 2.9×2.8cm, 右下 李聖規印	 東坡文粹 古 3432-3_4 3.2×3.2cm, 右下 至叔
 四溟堂大師集 想白古 819.53-Y95s_1 2.7×1.4cm, 右下 末松圖書	 杜機詩集 一簑古 811.081-c456d_2 2.1×2.1cm, 右下 辛	 杜機詩集 一簑古 811.081-c456d_3 2.6×2.6cm, 右下 景履
 杜機詩集 一簑古 811.081-c456d_4 3.0×3.0cm, 右下 李基德	 晩村稿 奎 4895_1 3.8×3.8cm, 右下 潘南朴氏	 晩村稿 奎 4895_2 3.9×3.9cm, 右下 宗喜汝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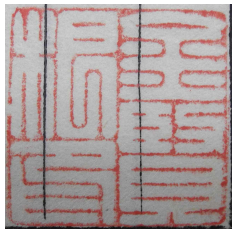
www.kci.go.kr

 文谷集 古 3428-306_4 3.8×4.0cm, 右下 尹世紀印	 文谷集 奎 4092_1 3.0×3.0cm, 右下 徐宗伋印	 疎齋集 一簑古 819.53-Y57s_1 3.1×3.1cm, 右中 賜號善齋
 疎齋集 一簑古 819.53-Y57s_2 3.1×3.1cm, 右下 閔丙承印	 疎齋集 古 3428-163_2 1.5×1.5cm, 右下 研農	 疎齋集 古 3428-163_3 2.5×2.5cm, 右下 研農
 北厓先生文集 古 3428-595_1 3.0×3.1cm, 右下 金溪	 北厓先生文集 古 3428-595_2 3.2×3.3cm, 右下 西齋	 疎齋集 奎 7032_1 3.1×3.1cm, 右下 金亮行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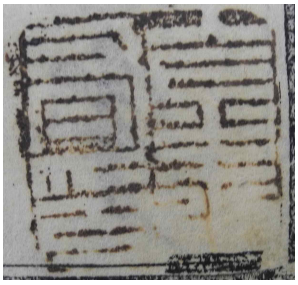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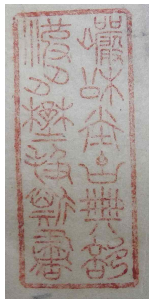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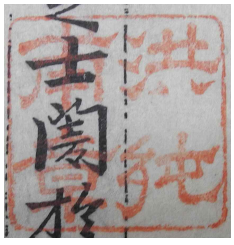
www.kci.go.kr

 餅山先生遺集 古 819.5-G423b_3 2.3×2.3cm, 右下 眞城世寶	 餅山先生遺集 古 819.5-G423b_4 3.6×3.6cm, 右中 高山齋	 復初齋詩集 奎中 2375_1 2.9×1.3cm, 右上 平石圖書鑑賞
 復初齋詩集 奎中 2375_2 3.1×3.1cm, 右下 申氏二卯山房	 復初齋詩集 奎中 2375_3 3.0×3.0cm, 右下 考琴堂印	 本庵續集 奎 15619_1 1.2×1.2cm, 右上 朴齊翊信
 餅山先生遺集 古 3428-581_2 2.4×3.1cm, 右下 晩閒山人	 匪所別章 古 2410-29_1 4.0×0.9cm, 右上 任氏家藏	 匪所別章 古 2410-29_2 2.0×2.0cm, 右下 敬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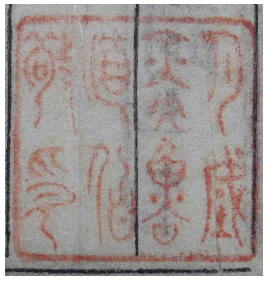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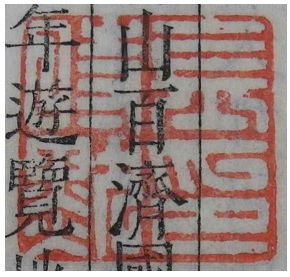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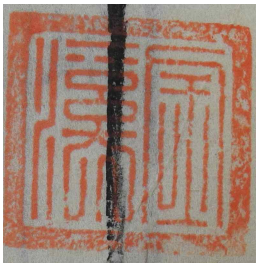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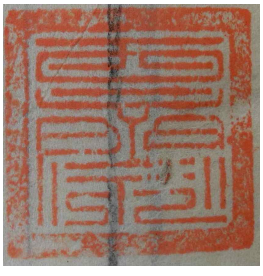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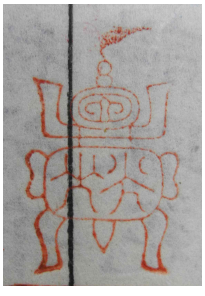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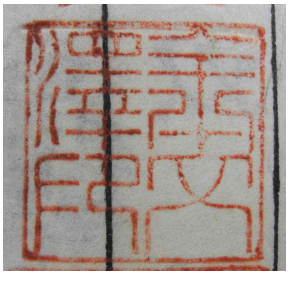
www.kci.go.kr

 匪所別章 古 2410-29_3 2.0×2.0cm, 右下 景叟	 匪所酬唱 古 3441-29_1 4.0×0.9cm, 右上 任氏家藏	 匪所酬唱 古 3441-29_2 2.0×2.0cm, 右下 敬行
 匪所酬唱 古 3441-29_3 2.0×2.0cm, 右下 景叟	 談草 古 4655-43_1 4.0×0.9cm, 右上 任氏家藏	 談草 古 4655-43_2 2.0×2.0cm, 右下 敬行
 談草 古 4655-43_3 2.0×2.0cm, 右下 景叟	 三山齋集 奎 4228_1 3.4×3.4cm, 右下 金賢根印	 西潭先生文集 奎 5937_1 5.0×4.8cm, 右下 蔡東益謙受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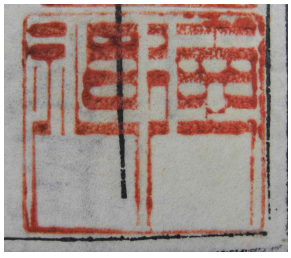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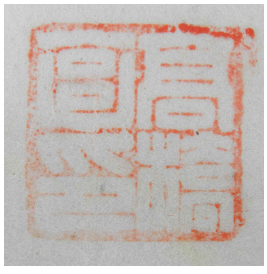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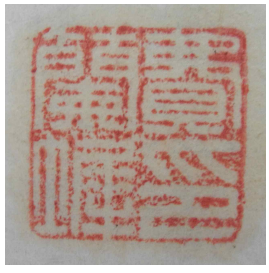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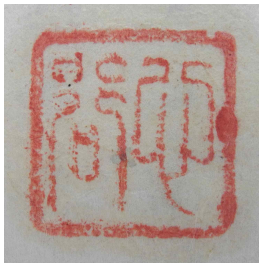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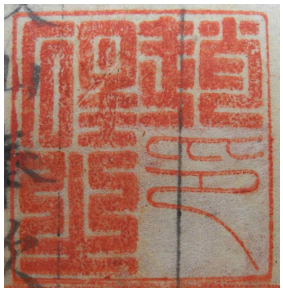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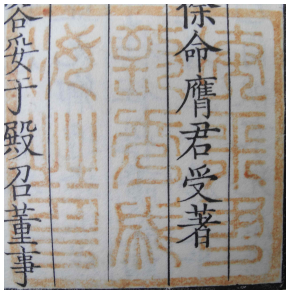
www.kci.go.kr

 西潭先生文集 古 3428-47_1 2.9×3.2cm, 右下 金玉有印	 西潭先生文集 古複 3428-47_1 3.9×3.9cm, 右下 金愼齋印	 別洞先生文集 古 3428-863_1 4.8×2.0cm, 左下 巖松堂古典部 波多埜扱斯書
 別洞先生集 奎 4072_2 3.5×3.5cm, 右下 洪純甫章	 別洞先生集 奎 4072_3 2.3×2.3cm, 右中 南陽	 別洞先生集 奎 4072_4 2.5×2.5cm, 右下 洪啓禧印
 別洞先生集 奎 4072_5 2.8×2.8cm, 右下 純父	 屛溪先生集 奎 6663_1 3.8×3.8cm, 右下 光山鄭枋元禮	 餠山先生遺集 古 3428-581_1 2.7×2.7cm, 右下 新埜放民

www.kci.go.kr

 北軒居士集 古 3428-152_1 2.7×2.7cm, 右上 月城金魯直伯敬印	 北軒居士集 奎 4901_1 3.3×3.3cm, 右中 金時默印	 北軒居士集 奎 4901_2 3.3×3.3cm, 右中 而愼
 錢牧齋有學集 古 3424-8_1 3.4×3.4cm, 右下 福德長壽	 三棄齋文集 古 3428-596_1 3.0×3.0cm, 右下 金溪	 三棄齋文集 古 3428-596_2 3.2×3.2cm, 右下 西齋
 四未軒文集 古 3428-589_1 2.6×2.6cm, 右下 竹裏居士	 沙溪先生遺稿 奎 6268_1 2.7×1.6cm, 右下 光山	 沙溪先生遺稿 奎 6268_2 2.0×2.0cm, 右下 金文澤印

www.kci.go.kr

 沙溪先生遺稿 奎 6268_3 2.1×2.3cm, 右下 德祖	 沙溪先生遺稿 古 0270-3_1 4.1×4.1cm, 右下 恩津宋炳遠子徵章	 沙溪先生全書 奎 15636_1 2.5×2.5cm, 右下 瑞雲
 四溟堂大師集 古 3428-614_1 2.5×2.5cm, 右上 高橋亨印	 三溟詩草 古 3447-35_1 2.5×2.5cm, 中下 費蘭墀印	 三溟詩草 古 3447-35_2 2.5×2.5cm, 中下 心谷
 東岳先生集 奎 6717_5 3.1×3.0㎝, 右下 趙碻之印	 東岳先生集 奎 6717_6 3.3×3.2㎝, 右下 叔玉	 保晩齋集 一簑古 819.54-Se61b_6 7.1×6.9cm, 右下 海平尹致秀成汝之印

www.kci.go.kr